

미담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미담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목차

- 3 인트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 6 미담 구성원 존재 소개

노동팀

에세이

- 9 내가 마주한 노동-진아
- 16 일을 왜 하는가-티몽
- 20 좋은 일이란-일개미

대담

- 32 협동조합 노동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49 노동의 정의가 바뀔 때
- 70 현장이야기- 당연하지만,
보편적이지 못했던 권리

콘텐츠

- 78 미안해요, 리키

먹거리팀

캠페인

- 82 비건캠페인에서 만난 사람들 :
비건 캠페인 소개+
우리가 한 것들
- 89 나에게 비건이란?

대담

- 94 즐거움을 나누는 비거니즘 식탁,
무지개 테이블
- 111 권리로서의 채식은 꿈꾸는 사람들
- 127 감춰진 삶을 보는 힘
- 154 최종 담화

인터뷰

- 165 한살림운동과 채식이 만나면
- 172 마음을 담은 건강한 빵,
니니네 베이커리
- 182 카페에서 함께 해볼까, 비거니즘
- 193 건강과 복을 부르는 빵집,
우부래도

콘텐츠

- 202 우리가 함께 본 영화
- 206 활동 소감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진아

2020년 청년다양성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모두 청년이고, 저마다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활동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청년 문제’가 화두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문제’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청년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사회의 문제를 청년 문제라는 이름으로 가림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배제와 소외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기성세대가 말하는 ‘청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만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마치 청년들이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문제를 겪는 듯이 대상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청년 정책은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으로 소비되고 싶지 않았다. 사회의 부속품이 아닌 주체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우리는 함께 ‘청년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조건을 고민하자’라는 공통의 합의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

는 모임의 이름을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담론을 형성한다는 뜻에서 ‘미담’이라고 지었다. 각자 생활에서의 고민을 토대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조건을 고민하기로 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 해결해주세요.’라고 기성세대에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성세대의 시혜를 받는 존재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우리의 논의의 끝에 혁신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기존에 공고하게 형성된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루아침에 뾰족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묘안을 만들기보다 기성의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질문들을 던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균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 제작한 무크지인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에는 미담 구성원 개개인이 살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 우리가 미담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캠페인 그리고 고민을 확장하기 위해 만났던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처음 연구소에서 청년다양성포럼을 운영하게 된 나에게, 선뜻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내어준 구성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나이도 사회에서 말하는 배경(?)도 모른 채, 일 년을 함께 했다. 서로가 어떤 때 좋은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을 불편해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 힘이 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미담은 우리들의 대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살아갈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실천과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미담 구성원 존재 소개

connect.midam@gmail.com



일개미

못할 것 같았던 일을 기필코 해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따뜻한 감성의 카페를 좋아하는 일개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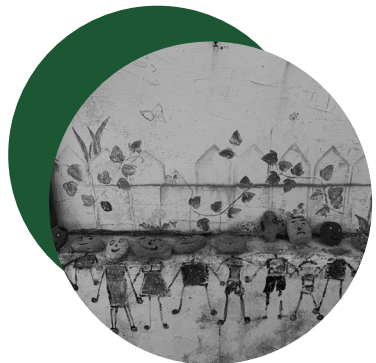
조아

서로의 연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푸르른 자연 속의 삶을 좋아하는 조아입니다.



티몽

하늘을 볼 때 기분이 나아지고, 초록색을 좋아하는 티몽입니다.



진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삶의 고민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진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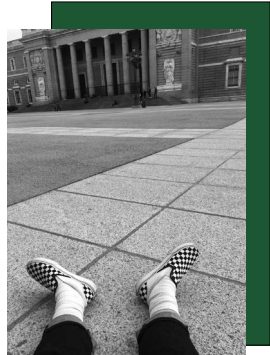
소리

나란히 놓인 책등을 보거나 애정하는 사람들과 산책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파랑과 초록을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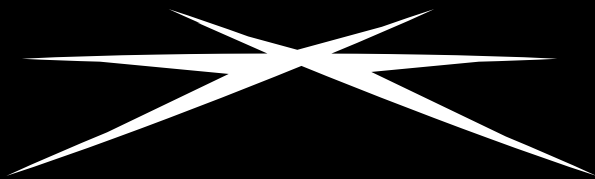


기현

새로운 장소에서 목적 없이 걸을 때 설렘을 느끼는 기현입니다.



노동



노동을 키워드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정의를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 안전망(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자본가의 이윤만을 중시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상실된 노동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제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주체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찾아가고자 했다.

내가 마주한 노동

작성 : 진아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학 내에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본 나는, “노동자분들이 힘드시면 우리가 청소를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말을 하는 나를 선배들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후에 학교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담당하시는 노동자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노동 현장을 듣고, 보게 되었다.

노동자분들은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위해 첫 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담당 구역 청소를 모두 마쳐야 한다. 밤새 넓은 캠퍼스에 쌓인 모든 쓰레기를 정리하고, 학내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한다. 전날 밤 행사가 있는 날에는 청소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봐 배우자가 함께 도와서 청소를 하기도 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깨끗한 캠퍼스를 위해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이 그런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족의 도움을 빌려 가면서까지 노동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다. 거기에 청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 도구도 한정적으로 주어져서 노동자가 직접 청소 도구를 사야 하기도 했

다. 지급되는 청소용품만으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청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쉼터였다. 사실 청소 노동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 그들에게 학교가 제공한 쉼터는 화장실 가장 맨 끝 칸, 걸레를 빠는 곳이 있는 작은 칸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노동자분들은 자신들의 노동 그 자체보다도 노동하는 환경에 대한 부당함, 자신의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많이 이야기하셨다.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노동자분들이 힘들면 우리가 대신 청소를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음을 깨달았다.

‘불쌍한’ 노동자?

과거 나의 발언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 청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4학년이 되던 해에 다시 청소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연대해야 하는 입장과, 학생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뉘었다. 나는 감정적으로는 그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을 설득해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나만의 언어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집회 현장에서 발언도 하고, 투쟁하고 계신 곳에 종종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당시 노동자분들은 추운 겨울, 캠퍼스의 한 가운데에서 텐트를 치시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셨다. 그때가 2월쯤 되었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일생에 한 번뿐인 학위 수여식에 노동자 투쟁 텐트가 있어서야 하겠냐’며 텐트를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논리에 수긍했고, 그런 논리에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결국 학위 수여식 직전에 텐트가 철거되었다.

돌이켜보면 텐트는 캠퍼스의 쾌적한 환경 이면에 가려져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자, 상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그리고 그곳의 구성원들은 너무 쉽게 그 존재와 상징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의 노력으로 청소 노동자의 노동 환경 실태가 여러 콘텐츠를 통해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들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들을 보이기도 한다. 왜 그럴까?

내가 과거에 ‘대신 청소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들을 시혜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환경에 대해 ‘사정이 안타까우니,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해’ 라는 주장으로 연결되어야 현실이 바뀐다.

권리를 찾기 위해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청소 노동자의 부당한 노동 환경과 대우를 누가, 어떻게, 왜 결정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당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노동자 투쟁의 원인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학교는 청소 노동자는 대학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용역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자이니 계약 만료 이후에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분한 대우를 할 돈이 없어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대학의 말이 가증스러웠다.

그리고 용역 업체 노동자라고 해도, 과연 대학의 책임이 전혀 없을까? 캠퍼스의 청결과 관리에 대해서는 대학 본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많다. 첫 수업 시작 전에 청소를 마무리할 것, 얼마만큼의 공간을 어떻게 청소할 것 등.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

으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 노동자 휴게실도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가 꿰뚫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치졸하기까지 하다.

앞선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결국 청소 노동자의 부당한 노동 환경과 대우는 대학이 결정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 업체를 이용해서 말이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야 어찌 되었든 대학은 비용만 절감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학에 분노해야 한다.

시혜가 아닌 권리를 위한 연대를

최근에 대학 내에서 사비 또는 학생 자치비를 활용해 청소 노동자를 위한 충분한 청소 도구를 마련하고 휴게실을 만드는 활동이 늘어났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만은 아닐 수 있다는 고민이 든다. 노동자들이 선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 노동을 위한 충분한 청소 도구와 쾌적한 휴게실에서 쉴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를 해야 한다. 이들의 상황을 안타까움 정도로만 인지한다면, 대학의 비용 효율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타까움이 아닌 분노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연대해야 한다.

지금의 고민

지금까지 대학에서 마주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밖의 사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규정해 버리기도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원리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까? 오늘도 우리는 기업의 비용 효율을 위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고 있다. 나의 노동이 어떻게 임금으로 환산되고 있는지, 이것이 정당한 대가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나와 내 동료의 노동으로 인해 기업이 운영되고, 자산을 불린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업에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하라는 말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라는 말이 부자연스럽다. 분명 그 이면에 숨어 책임을 방관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보다 기업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로서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부속품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동은 오늘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한다. 나의 노동은 오늘도 조직을 지속하게 하고, 누군가의 노동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사회에서 노동자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행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종속되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 구조를 깨 버릴 수는 없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는 지긋지긋하거나,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강요에서 벗어나기를 다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자기 계발을 강요당해온 나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환경이 ‘보너스’, ‘복지혜택’ 등으로 포장되는 시혜성이 아닌 권리로서 인식될 때,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치며

사실 미담에서 ‘노동’이라는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멋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며 살아왔지만,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분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노동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그래서 각자가 마주한 경험 속에서 고민한 노동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다. 우리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현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성의 사회 구조에서는 ‘종속되는’ 노동을 했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주체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주체적인’ 노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대안을 상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만났다. 모두가 주체적인 노동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활동가의 이야기, 현재 노동 구조에서 배

제되고 있는 이들의 노동권을 주장하는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실었다. 말로만 좋은 ‘대안 노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 남겨진 고민은 주체로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기성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일 것이다.

일을 왜 하는가?

작성 : 티몽

누군가가 두 달짜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나에게 글의 제목처럼 일을 왜 하냐고 묻는다면, 글을 쓰는 시점의 나는 스스로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겠다. 비록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독립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턱도 없지만, 독립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더 높은 일터로 가야하고 그러려면 스펙이라는 것을 쌓아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턴 일을 한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독립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일을 구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일에 투자하며 살기에는 너무 고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 무사히 일할 수 있을까?

작년 9월 미담 워크숍에서 노동이 힘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나는 ‘노동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함이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든 결국 내가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선택권은 없었다. 현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으로 먹고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졸업이 두렵고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것이 불안한 것이다. 나 또한 어떤 회사의 인턴으로 지원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렸지만, 졸업을 앞둔 불안감과 ‘금턴’이라고 불릴 만큼 구하기 어려운 인턴 자리를 사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작정 지원했다. 당

시 워크숍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성별 임금격차, 비정규직화 등이 있었다. 대다수의 대답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으나 마음속으로는 깊게 와닿지 않기도 했다. 인턴 이전에 돈을 번 경험은 영어과외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였다. 일주일에 두 세 번,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일했다. 노동 시간이 짧았고 기본적인 성의와 성실함 정도의 책임감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주 5일, 7시간 반 동안 꼼짝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가는 나를 발견했다. 일을 견디면서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면서 살았다. 나의 노동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생산성의 수치화와 그에 대한 비교로 인한 압박에 있었다.

처음 입사한 날, 회사로부터 업무표라는 제목의 구글 시트를 공유 받았다. 이는 매일 자신의 업무 진도를 공유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빈 업무란에 해당 색을 채우면 되는 것이다. 업무 진도를 공유해야 사수가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현명한 업무 방식이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단계별 업무가 무지개색으로 나누어져 있어 화려하고 나름 성의도 있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업무표의 색에 따라 나의 자존감과 하루의 온전함이 좌지우지되기 시작했다. 아래는 어느 하루의 일기다.

2021년 1월 28일

함께 입사한 15명의 인턴들은 오전 9시 자신의 진도표 첫 칸에 색칠을 하며 그날의 업무시작을 알린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15분 단위로 촘촘히 나누어진 칸을 바라보다 오늘은 얼마큼 더 속도를 내야 할지 잠시 가늠해본다. 안타깝게도 가능성이 안 간다. 파란색으로 채워진 다른 사람들의 칸을 보고 내 칸을 노란색으로 칠한 후 일을 시작한다. 한 파트가 완성되면 해당 색을 채워 넣고 퇴근하기 전 다시 내 진도를 기록한 후 컴퓨터를 끈다. 너무 고단해 일하다가 두 대의 모니터에 얼

굴을 박고 기절하면 어찌지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도 버텼다. 하지만 일곱 시간 반을 걸려 바꾼 색이 하나뿐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 팀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다른 인턴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진도표에 새겨진 내 노란색이 어쩐지 우울해 보인다. 내 업무 능력이 대놓고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다. 업무 속도가 가장 빠른 인턴이 물을 마시러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나섰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내요?’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아무 생각 없이 해요.’라고 대답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구나. 이게 정말 일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나에게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길래 고작 두 달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이토록 좌절할 것일까? 인턴이 되기 전 나는 일을 통해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이를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것은 예상보다 더욱 착취적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1~2주 차에는 도저히 못 할 것만 같았던 업무량이 한 달이 지나가자 익숙해진다는 것이었다. 착취당하는 것에 스스로에게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5분이라도 마음 놓고 창문 밖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업무량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열댓 명의 인턴과 같은 층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칸이 하나뿐인 곳에서도 ‘그래도 일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그것이 나의 유일하고 소심한 투쟁이었다.

인간다운 노동을 하고 싶었다.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몰아치는 노동량에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주어진 시간에 업무량을 마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밀린 일을 집에 끌고 가지 않고 쉴 수 있었다. 그렇게 사나흘 숨 가쁘게 일해 간신히 마감날에 제출한 작업물은 1만 2,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팔렸다. 무슨 기준으로 나의 노동이 저 정도의 값어치로 매겨져 팔리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노동이 존재하

지만 어째서인지 그만큼의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주체지만 자본에 이득이 되는 노동에 의한 결과물만 사회에 비추어질 뿐, 그 노동을 이루어 낸 사람들은 가려져 왔다. 예컨대 “요즘 일은 기계가 다해”라는 말속에는 기계를 작동하고 관리하는 노동자, 기계를 공장으로 운송하는 운송업자, 기계의 부품과 본체를 만드는 철강 산업 노동자, 어느 노동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휴일 없이 집 안의 수많은 일거리를 도맡는 가사노동자의 존재가 부재한다. 특히 개인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당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고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회가 ‘노동’이라고 규정하는 영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사회가 노동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꾸만 지워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도 한 가닥의 실마리는 가지고 있다. 인간다운 노동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를 위해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킬 것. 최저임금은 받고 일하자고 다짐했었으나 ‘금턴’이니까 일단 지원부터 하고 본, 그리하여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 억울했던 나에게 다시 말한다. 앞으로도 자본에 종속된 삶을 살겠지만 적어도 자본이 노동의 주체가 아닌 노동자인 나와 우리가 노동에 대해 결정하자는 삶을 살자고.

참고문헌:

데이비드 프레인. 2017. 『일하지 않을 권리』. 동녘.
채효정. 2020. “탈노동.” 『참세상』 2020.02.20.

좋은 일이란

작성 : 일개미

신러다이트 운동을 할 게 아니라면

‘19세기에 기계에 밀려난 수공업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부수고 다니는 21세기 버전 신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4차산업혁명에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Si대학원을 들어가야 하는 걸까.’

취업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극단적 밸런스 게임이다. 그러나 이런 나의 우려와는 달리 관련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해올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적인 상품이 탄생했던 역사가 그래왔듯 이번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대량 일자리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두려움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일 뿐이다. 일자리의 붕괴가 매일 아침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가게에 무섭게 파고드는 키오스크, 제조업 종사자들의 몰락,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해주는 법률 상담 앱, 직원 수가 1/20 수준인 네이버의 시가 총액이 현대차의 2배라는 사실, 인문계 대 공학계 대학정원이 1대2인 반면에 인문계 대 공학계의 채용공고가 1대 32라는 기사가 그렇다.¹ 아날로

1 안용성·윤지로·배민영. 2020. “노동4.0 별 ‘일’ 없습니까? [특집기획].” 『세계일보』 2020.06.06.

그 세대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하루 아침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비)노동자가 된 나는 작금의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2020년 3~4월 두 달 사이에 일자리 102만 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2008~2010년 금융위기 때 일자리 84만 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이다.² 동시에 현재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 8,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치인 만큼 역대로 심각한 고용상황이다.³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치열하다. 임금노동이 유일한 수입원인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단 아무 일자리나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나 고용조건을 따져볼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줄어드는 일자리와 함께 노동자의 입지도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협상력은 점차 땅으로 떨어져서 임금인상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도 힘들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거절할 수 없는 슈퍼 슬레이가 되어버렸다.

하늘에 ‘좋은 일자리’ 따기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괜찮은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일할 하는 업체나 근무조건, 작업난이도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괜찮은 일자리’ 개념이다. (‘괜찮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인다.)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적절한 사회보호와 더불어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이 소득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

2 안용성·윤지로·배민영 위 기사와 동일

3 전희훈. 2021. “지난해 고용, 외환위기 이어 역대 두번째로 심각.” 『서울경제』 2021.02.16.

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뜻하기도 한다.⁴ 보통 우리가 ‘정규직’ 일자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노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이런 좋은 일자리의 요건을 갖춘 ‘가장 괜찮은 일자리’는 10-20% 사이라고 한다.⁵ 전체 노동자 중 10% 안팎만 상식적인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좋은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다.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소위 ‘좋은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갈등 상황이 더 잘 보이는 편이다. 작년에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단적으로 표출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논란’⁶과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선별 방안을 두고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휴진한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⁷이다. 서로 다른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같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 정규직의 연봉을 월평균으로 나눈 소득은

약 760만원이고 신입사원은 약 375만원이다.⁸ 2019년 기준 대학교를 졸업한 직장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260만원인 것에 비해 엄청난 차이이다.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6년 기준 약 1,304만원이다.⁹ 반면 같은 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80만원, 비정규직은 149만원이었다.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4.6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8.7배를 버는 셈이다.¹⁰ 수험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기회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직군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렵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울타리 밖 경쟁자의 출현을 극도로 경계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이라는 절차에, (좋은 일자리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라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파이를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죽도록 갈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고통은 애꿎은 동료 노동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든 작금의 노동시장을 향해 따져야 한다.

4 김항구 외. 2017. “장애인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 요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p.265.
 5 황세원. 2020.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산지니. p.91.
 6 전해원. 2020. “인천공항 정규직은 공정한가.” 『시사인』 2020.07.13.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논란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이 공항 직원 1만명 모두를 금년 내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3년 뒤 인천공항에 필요한 상·지속적 업무를 하는 9785명 중 7642명이 공항 운영, 시설·시스템 관리, 보안경비 등 3개 자회사로 고용되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큰 논란은 없었다. 그러나 상·지속 업무이면서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가 아니라 인천공항이 직접 고용한다는 인천공항의 발표 이후 인천공항 정규직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감히 자격도 없이(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어렵게 시험을 뚫고 온 정규직 본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7 전해원. 2020. “의사 파업, 정규직화 반대... 그들만의 ‘공정’.” 『시사인』 2020.09.28.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 :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밀착성’에 중점을 두고 공공의대 선별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논란이 된 것은 공공의대 정원의 수배 정도인 후보군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는 1단계 전형에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의 추천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전공의 집단휴진은 ‘시도지사 추천’을 두고 선별 과정의 공정성을 헤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며 단체로 휴진에 들어간 사건이다.
 8 전해원. 2020. “인천공항 정규직은 공정한가.” 『시사인』 2020.07.13.
 9 이도연. 2020. “대졸이상 취업률 67%로 소폭 감소... 직장 취업자 초봉 259만 6천원.” 『연합뉴스』 2020.12.28.
 10 전해원. 2020. “의사 파업, 정규직화 반대... 그들만의 ‘공정’.” 『시사인』 2020.09.28.

고를 게 없는 선택지

‘좋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두 가지 기로에 놓인다. 극소수로 남아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막차에 가까스로 탑승하거나, 노동력을 N개로 쪼개 여러 개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 주로 나누는 이야깃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하는 문제이고, 그중 단연 베스트 토픽은 공무원 시험이다. 실제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공무원을 생각해본다고 한다.¹¹ 공무원은 어떻게 ‘꿈의 직장’이 되었을까. 지금 부모님 세대만 해도 공무원은 그렇게 선망의 직업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IMF전까지 경제 성장과 함께 각종 일자리들이 막 생겨나던 황금기였다. 반면 지금은 이른바 ‘공무원 대란’이다. 공무원 준비에 관심 없는 청년층은 겨우 14.2%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 역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문에서 방황하고 있을 미래의 나를 걱정해 진로희망을 ‘공무원’으로 써냈다. 2020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는 3만 9,397명이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69.73 대 1이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은 최소 수십에서 높게는 수백 대 1의 극강의 경쟁률을 나타낸다.¹² 공무원을 포기한다고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기업 취업에 도전하려면 여러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또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 바엔 취준생 입장에선 시험 하나에 올인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탓에 공무원에 대한 열기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응시생이 몰리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시족들은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11 이민아. “청년층 10명 중 8명 공무원 시험 ‘기웃’…사회적 손실 연간 17조원.”

『조선비즈』 2021.01.22.

12 이민아, 위 기사와 동일

지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효과가 줄어들고, 또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만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¹³ ‘공무원’에 많은 취준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 민간부문에서 상식적인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공시생 붐과 더불어 최근 여러 가지의 일을 하는 ‘N잡러’의 경제활동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2개 이상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가 있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 N잡러를 하게 된 계기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N잡러로 나뉜다. 전자는 본업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N잡을 선택한다. 반면 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N잡을 선택당한다. 아직까지 온라인상에서는 ‘부업으로 떼돈 벌자’, ‘성공적인 N잡을 위한 꿀팁’ 등 주로 N잡이 째짻한 부수입원쯤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나 여유 자금 마련 등 N잡 유입 경로가 비교적 다원화 되긴 했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7년 펴낸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상 지위에서 부업 비중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¹⁴ 실제로 서울에서 일하는 여성 4명 중 3명이 생계적인 이유로 N러를 하고 있다.¹⁵ 과연 한 사람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N개로 갈아 넣어야 하는 경제활동 방식은 우리에게 고수익이라는 보상과 멀티플레이어라는 명예의 기쁨만 가져다줄까. 2016년 기준 부업자 수는 40만 6,000명이었고¹⁶, 2019년에는 47만 명

13 이민아, 위 기사와 동일

14 서민우. 2020. “투잡 뛰는 부업자 월평균 47만명...역대 최대.”

『라이프점프』 2020.01.24.

15 김지현. 2021. “서울 일하는 여성 55% ‘n잡러’…4명중 3명 경제적 이유.”

『연합뉴스』 2021.02.03.

16 최병일. 2020. “[말랑말랑 경제학] 킷 이코노미가 불러온 플랫폼노동자 전성 시대.” 『매일경제』 2020.12.08.

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과 각 이코노미¹⁷가 발달되면서 개별노동자들이 N잡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면서 N잡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인재 플랫폼이 직업 세계를 변화시킨다’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프로젝트, 파트타임 등 다양한 비전통적 일자리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안정적 고용과 괜찮은 수입’을 보장했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 (...) 사회 전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소수의 특화 인재들은 전 세계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여러 기업들과 동시에 일하며 전보다 많은 수입을 거두겠지만, 다수의 구직자들은 거대한 인력 클라우드 내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⁸ 또한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치원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가 되면 기존 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직장을 옮겨야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⁹

동시에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²⁰ 공무원도 N잡러도 하기에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3의 선택지는 ‘노동 포기’인 셈이다. 먹고 살기 위해 너무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고행의 끝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도구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길일까? ‘평범한 게 제일 힘들다’는 말이 뻗속 깊이 이해가 가는 요즘이다.

17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매일경제용어사전)

18 김민정. 2019. “‘N잡러’ 전성시대(1) “저의 직업은 N잡러입니다.” 『한국금융』 2019.04.06.

19 최병일, 위 기사와 동일

20 이명철. 2021. ““일자리 없다고 잡일할수도”...2030 취업자 30만명 '사상 최대'.” 『이데일리』 2021.02.01.

새로운 노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정한 노동시장의 의미]

아직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구체적 정의는 몰라도,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변화할 노동 시장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새로운 노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는 이래야 한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이 안고 왔던 문제부터 돌아보자.

우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하청-원청,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 간접고용-직접고용 등 노동자 간에 간극을 만드는 요인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이것들은 단일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교차되고 중첩되어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낸다. 남성 노동자 대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69.4%라는 사실²¹은 이제는 거의 엽불처럼 외우고 다닐 정도다. 노동자를 ‘비장애인 정규직 남성’으로만 평가하는 노동 시장의 관례는 다른 노동 주체들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발언권을 빼앗아왔다. 결국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별로 노동자가 파편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노동 시장 문제를 타개할 만한 하나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 한다. 인천국제공항, 전공의 집단휴진 사례처럼 오히려 투쟁의 대상이 노동자 서로로 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 시장의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사인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하는 일이 비슷하면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상시·지속 업무는 가급적 비

21 최현지. 2021. “여성의 노동은 왜 차별받는가.” 『여성신문』 2021.02.06.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이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아우르는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정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어 임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면,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좋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은 깨지고 새로이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안에서 기존 정규직과 새 정규직의 격차는 축소될 수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²²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또다시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공고한 성을 쌓으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정이환 교수의 말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이 결국에 ‘정규직’이라는 특권층을 늘려서 노동시장 내의 다른 노동자를 배제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하는 일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공급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만 가능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인 상황에서 연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 분절에 일조한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직무급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정의가 생각한 대로 잘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노동시장 문제를 되짚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 새로운 노동시장의 규칙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2 전혜원. 2020. “인천공항 정규직은 공정한가.” 『시사인』 2020.07.13.

23 전혜원.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 『시사인』 2021.01.25.

[노동의 스펙트럼 넓히기]

예컨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은 그저 개인이 하는 취미 생활 정도로만 인식됐을 뿐 정식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크리에이터’로서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인기 직종이 되었다. 반면 ‘시 낭송’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시 낭송이 환자들의 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후, 시 낭송 공연을 통해 시 낭송 대중화와 학문적·예술적 입지를 만들어 가는 노동자도 있다.²⁴ 이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림자 노동 등으로 표현되었던 모든 노동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아침부터 밤까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에서 빛지고 있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식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정당한 대가는커녕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가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매일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노동이 있다. 바로 소위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불리는 폐지 수거 노동자들이다. 고금속 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도시의 거리를 치우고 재활용품을 구원해내는’ 노동자이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의 13% 수준을 번다. 만약 폐지 수거 노동자들이 없어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약 3조9000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은 거의 폐지 수거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²⁵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비취지고 있다.

24 김상훈. 2018. “[노트북 단상] 일과 놀이의 경계.” 『부산일보』 2018.08.20.

25 고금속. 2020. “폐지 수집 일의 기쁨과 슬픔.” 『경향신문』 2020.10.09.

보이지 않던 노동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에 대한 적당한 대가’라는 공식이 정의로운 사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기본 상식일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직업의 귀천은 누가 정하는가? 보이지 않던 노동을 가시화 하는 작업은 또한 그동안 노동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 판단되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어떤 일이 얼마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결국 가야 하는 길이다. 어떤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노동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행복하고 싶지만 노동은 하고 싶어

다음은 미담 노동팀 멤버들이 생각한 ‘좋은 일자리’의 모습이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적당한 강도의 일과 임금이 주어지고, 쉼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환경이 갖추어진 일자리”

“조직 내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보다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워라밸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도 내가 갈리지 않고 동료와 함께 즐겁게 일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고, 노조의 힘이 강하고, 연령과 성에 따른 차별이 없고, 인생을 즐기기에 충분한 정도의 임금을 받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

이제껏 전통적인 일 가치관을 철저히 흡수한 나에게 좋은 일자리란 항상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이다. 다른 가치관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고용안정성이었다. 그러나 노동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라면 다른 가치관 등 여러 제반 요

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책 「일하지 않을 권리」에서 저자는 ‘자본주의가 그토록 엄청난 생산성 도약을 이루어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가?’ 라고 질문한다. 우리는 왜 아직도 좋은 일자리를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을까. 단순히 우리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어 여유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딱딱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다. 역사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중세시대까지 노동은 오랜 시간 동안 경시되어왔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노예나 하층민의 몫이었다. 그러나 근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몸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노동자의 지위와는 하등 상관없이 자본의 필요에 의해 노동 자체의 위상이 변화된 것이다.²⁶ 이에 대해 「일하지 않을 권리」의 저자는 ‘일할 필요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사회는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를 얻는다’고 말한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개념화하는 일도 정치적 영역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정치적 주체로써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26 박형준. 2017. “노동시의 반격: 노동 혐오에 맞서는 무기.” 『레디앙』 2017.04.10.

협동조합의 노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다은 (대학생연합회학생사무국책임활동가)
주석 (대학생협연합회 학생이사)

정리 : 진아

미담 노동팀에서는 ‘탈노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비춰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노동이 없다면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했다. 하지만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닐까?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건 아마도 자본에 종속된 삶을 의미하는 것일 거다. 그렇다면 개인이 주체적으로 나와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은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 노동 그 자체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직접 노동하는 형태도 있지만, 대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고용한 이들이 운영하는 노동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기존 경제에서 생각하는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노동과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직접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조합원 노동이 공존하는 협동조합 안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 대학생협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박다은 학생사무국의 책임활동가와 박주석 학생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생사무국은 2019년 대학생협연합회 총회에서 발족했다. 학생조합원들이 주도성 회복을 위해 대학생협의 새로운 방향성을 상상하는 조직으로서, 책임활동가와 핵심 의제를 다루는 핵심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대학생협 학생조합원들을 조직화하고, 대학생협이 없는 대학의 학생들과 연대하며 가치, 연대, 개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왜 활동하게 되었나

미담 : 대학생협은 어떤 조직인가요?

다은 : 대학생협은 대학생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운영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 복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전국 35개 대학에서 생협이 운영 중이고, 학생과 교수, 직원이 함께 대학 내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당, 매점, 카페, 문구점, 서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담 :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운영에 관여하기 위한 조직이라 정의 내려 주신 것이 멋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조합원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은 : 저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대학생협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대학생협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적기업과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어요. 제 가치관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사회적경제가 그런 가치관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어렵지?’가 의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협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제가 막 생활을 하기 시작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제 가치관과 잘 맞는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도대체 왜 어려운지 탐구하고, 그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석 : 저는 한의대에 재학 중인데요. 한의대 건물에 복사실이 있어요. 전공



관련 자료들을 아카이빙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워낙 사장님이 친절하시기도 하고요. 외상도 쉽게 해주시고, 한의대 축제에서 무대에 오르실 만큼 학생들과 관계도 굉장히 돈독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과대학이 대학 안에서 공간을 옮기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알아보니 복사실을 운영하는 곳이 대학생협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협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복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협 사무실에 찾아가서 따졌죠. 가장 처음에는 갈등의 장면으로 대학생협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대학생협이 온전한 주체가 아니라 대학 본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더라고요. 복사실 상황에 대해서 대학생협 실무자분들도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분석을 하기 위해 총학생회에게 협조를 구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학교의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단과대학이 새롭게 이사 갈 건물에 임대료가 억 단위로 잡혀 있는 거예요. 대학생협에서는 억 단위의 임대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대학에서 대기업을 불러서 임대료 수익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대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복사실 사장님의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또,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공간이었기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죠. 이런 활동을 하다가 대학생협에서 학생이사 자리를 제안하셔서, 대의원 총회를 거쳐 이사가 되었어요. 대학생협 안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공간인 복사실과 그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하면서 제 첫 활동이 시작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서 대학생협이라는 학내 구성원 결사체가 현재 온전한 주체가 아니라는 상황을 가장 크게 느꼈고, 경험을 해보니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고, 이런 의견을 대학생협이 학교에 전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이런 것을 느끼면서 대학생협이라는 곳이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회가 지금은 많이 붕괴되고 있는데, 대학생협이라는 자체의 예산도 있고 제도도 있고 체계화된 민주적 회의제도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학생활동을 해보자는 희망을 가졌어요.

미담 :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생활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바꾸어 보고 싶다는 의지로 조합원이 되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나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직인데, 그런 원리와 두 분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다은 : 저는 대학생협을 통해서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보장되는 생활 복지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대학생협 운영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학생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학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우리의 필요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구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대학생협에서 하는 콩세알 프로젝트 꾸러미¹를 받으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복지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콩세알 꾸러미를 받는 것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에 든든한 복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요.

주석 : 저는 대학생협을 통해 교수, 대학 소유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어요. 대학생협은 대학생활에 집중하는 운동인데, 대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른 생활이 펼쳐져요. 거기서 발생하는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생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대학생협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열고, 새롭게 조직화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학교에 살아남은 학생 운동 중 하나가 노동자 학생 연대인데, 대학 내에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마저도 대부분이 학생들이 노동자를 ‘돕는다’는 봉사로 인식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식이 더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역량과 권한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실 노동과 교육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노동으로써 존립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도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대안 공간을 통해 학생과 노동자, 본인의 권리를 박탈당한 주체들이 서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 대학생협에서는 학기가 시작하면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2주에 1회 식품 꾸러미를 발송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의 한계는 왜 발생하는가

미담 : 두 분 다 협동조합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각자의 활동들을 하시면서 느꼈던 한계가 있나요?

다은 : 앞서 콩세알 꾸러미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생협이 생산하는 복지가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최근에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의에 들어가 보면, 결국엔 다 돈과 사업성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업성이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서 아쉬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생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계속해서 학생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학생들의 필요를 알아내고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생사무국과 각 학교별로 학생위원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을 수동적이게 만드는 구조가 대학생협에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 안에서 교수, 직원, 학생이 동등하지 않은 것 같고, 활동의 측면에서도 생협 실무자분들과 동등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에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아요.

미담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구조를 가졌잖아요. 그 안에 그걸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노동으로써 실무자의 노동이 있고, 활동가의 활동이 있는 것인데, 두 노동과 활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다은 : 지금은 대학생협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일들만 노동으로 인정되고, 학

생활동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대학생협이라는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조합원들의 그런 활동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 분들은 일을 직업으로 하시니까 전문성도 있고, 가진 정보도 많으세요. 반면에 학생조합원들은 본업이 학업이다 보니 전문성보다는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학생들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미담 : 협동조합의 원리를 보면 사실은 실무자의 노동과 활동가의 활동이 공동으로 조직의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나뉘어서 인식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주석 : 사실 저는 실무자분이 하는 노동과 지금 조합원 활동이 일상에서는 구분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노동과 활동 정의로 보면 예를 들어 실무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 활동의 영역인 것이고, 학생활동가가 대학 안에서 장터를 연다고 물건을 때와서 판매하는 것은 노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일상에서 노동과 활동이 구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는 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대학생협 안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지금은 제도 안에서 고용이 되었는가,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만 노동과 활동이 나뉘고 있어요. 사실 실무자와 활동가 간의 갈등은 노동이 서열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무자의 노동이 대학생협 안에서 하나의 위계질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대학생협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학생활동가는 졸업해 버리면 그만인데, 연속성을 위해서는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 관점은 대학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유사해요. 어차피 4년 후에 졸업을 할 텐데, 너희가 무슨 의사결정에 참여하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학생협에도 똑같이 그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실무자와 활동가 사이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위계질서는 각자의 역할 안에서 만들어져요. 활동가도 학생과 교수, 직원 조합원의 발언 영향력이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실무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따라, 대학본부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밀접하게 쌓았느냐에 따라 위계질서가 만들어져요. 성별에 따라서도 위계화가 되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진 퇴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에요. 여성 현장직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월급이 적어서 반값 임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 사무직 실무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훨씬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협동조합 안에서 견제해야 할 것은, 이렇듯 위계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협동조합은 노동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가

미담 : 미담에서 협동조합 노동을 대안으로 생각한 이유는, 협동조합이라는 공간은 조합원 노동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대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안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에 의하면 협동조합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이 발생하고, 위계화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서는 어떤 대안적인 노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석 : 저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는 반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경제 어법을 깨부수고 새로운 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경제는 어법을 깨부수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의 어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기도 하죠. 기존 어법을 깨지 않으면 사실 대안 공간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법이 훨씬 파괴적이고 강하기 때문이에요. 노동도 마찬가지죠. 이미 형성된 위계질서에서 우리의 사업비와 잉여금이 임금으로 배분되고 있어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까 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분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은 배제되게 되어요. 가장 힘이 없는 학생들의 활동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노동과 활동을 구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적게 받아 가는 것이에요. 협동조합 안에서는 노동과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활동이 어떤 가치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나 수치로 매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담 :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생산한 활동에 대한 인정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주석 : 우리는 활동에 대한 인정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쉽게 활동비를 떠올려요. 그런데 돈은 최종적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치화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죠. 우리의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위해 모두에게 기회와 역량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가도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집을 사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하지만 협동조합의 활동 목표는 안전하게 살 주거가 있는 것,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등 다양

한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우리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대학생협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최근에는 사회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활동비를 보장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직접 사회주택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고 살고 싶은 삶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조합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에 접근하게 하는 역량과 기회를 분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은 사업성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학생협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담 :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협동조합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적인 노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과 활동이 구분되는 기준이 지금은 임금을 받느냐, 활동비를 받느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각자가 이 조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된 것이고,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가 조직 안에서 주체적으로 각자의 안정적 삶에 대한 필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은 : 방금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 많이 가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활동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어려울 때 학생들 활동비를 먼저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곳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학생활동가들이 값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해도 그만인 일을 하는 기분인 거죠. 게다가 저희가 대학생협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많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에 힘도 안 실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주석 :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는 낸시 프레이저라는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를

많이 인용해요. 이 학자는 인정과 분배는 어느 하나에 치중되지 않고, 둘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해요. 문화적 인정, 경제적 분배, 정치적 대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대학생협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정치적 대표 영역은 형식적으로나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의 중요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주체별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권력 흐름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로 회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굉장한 실험이고,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대학생협이 충분히 대안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은 맞죠. 그런데 문화적 인정과 경제적 분배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해요. 학생 임원이 단순히 대표해서 회의에 온다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권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학생활동가들이 회의체에서 발화하는 담론이나 제안하는 의제들이 먹혀야 하는데, '실무자인 저희와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아요. 경제적 분배도 마찬가지로요.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특정한 곳에 얼마만큼의 회비 또는 잉여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대안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협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건드리는 것이 금기화도 같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금기도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잉여금도 사업은 사업이고 복지는 복지라고 별도의 영역으로 두고 활용하는데, 이건 기존의 경제 어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현재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대안적인 실험들이 많이 실천되고 있는데, 대학생협은 아직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 조직이 생겨날 때의 논의만 이어져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민주화 운동 당시에 생활 문화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대학생협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정치적 대표가 중요했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내용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회경제적 정의에 대한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고 있죠. 이런 새로운 논의를 새로운 주체인 학생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담 : 미담에서 했던 고민도, ‘나의 필요를 만들기 위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말씀하신 세 가지 요인이 잘 고민된다면, 협동조합에서 충분히 그런 대안적 노동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적 공간이라고 하면, 바꾸고 싶고, 바꾸어야 하는 현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생협은 대학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써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주석 :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재의 대학생협 운영은 우리 생활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협이 독립법인이지만 학교에서 말 잘 듣는 하청업체 내지는 어용노조와 같은 조직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죠. 대학생협은 여전히 현장 실무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식당 실무자의 낮은 임금과 강한 노동 강도와 같은 것들도 대학생협이 독립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의 책임은 가려 버리는 문제도 있죠. 대학생협이 그나마 힘이 있어서 운영 협의체를 만들 때에도 사실상 하부 위원회, 협의회가 되고, 원래는 대학 본부와 학생들이 시설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대학생협이 학교 대신에 나오고, 대학생협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는 창구가 되죠.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요. 이렇게 대학의 하부 조직처럼 기존의 어법을 따르는 협동조합은 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했을 때는 대학생협이 대안 공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무자와 학생에게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사실 지금까지 빼앗긴 역량들을 되찾아야 해요. 진짜 필요한 혁신은 이런 대개혁이죠. 조합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내고, 반사회적인 목소리,

기존의 어법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학생사무국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학생협의 다른 많은 공간은 이미 관성화되었다고 생각해요.

미담 : 협동조합 운동의 지향이 기존의 어법을 따르지 않고 대안적 공간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노동과 활동이 기존 사회에서 노동의 대안적 모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미담에서도 기존 사회에 균열을 내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어법을 만드는 활동에 대해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앞으로 학생사무국이라는 대안 공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다운 : 대학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환경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학생협을 통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경제적 이유로)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데, 대학생협은 기존과는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니, 다양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조합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대학생협 안에서 지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협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마트24와 함께 쿵스켓이라는 공동 편의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기업과 함께하다 보니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표적으로는 가격 결정권이 없어졌죠. 하지만 학생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쿵매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쿵매대 공간을 만들면서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프로젝트에 이용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힘을 키워가면서 가격 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확장해 가고 싶어요. 사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는 것도, 대학생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까요.

미담 :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협동조합은 새삼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자칫 자본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은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학생조합원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모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개별 대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협이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학생사무국에서는 대학생협 코로나 학생 대응팀 활동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개개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다같이 연대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큰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는 점도 협동조합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이런 연대의 힘이 기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뜨리는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주석 : 협동조합은 결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결사체가 이기주의 집단이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결사체의 특징에는 조합원 우선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쉽죠. 사실 대학생협 학생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 안에서도 위계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비활동 조합원이 있고 활동하는 조합원이 있고, 대의원이 있고 이사가 있어요. 다양한 위계가 생겨날 수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학생위원회라는 조직도 잘못하면 본인들의 이기주의 집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생적으로 자기반성이 필요하죠. 본인들의 활동이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돌아봐야 해요. 기존의 어법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실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듯, 미담 노동팀에서는 새로운 노동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노동을 떠올렸다. 협동조합 운동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기존의

경제 지형에서는 자본을 증식하는 일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었다면, 협동조합에서는 개인의 주체적 필요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대안 공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대안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서의 노동도 대안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노동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협동조합이 가진 대안적 노동의 모델이지 않을까.

대학생협의 활동가들은 대학생협이라는 공간에서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협동조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누가 하느냐,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나뉘지 않고 어떤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협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에 따라 위계질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사실 이런 문제는 대학생협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에서 모든 이들의 활동은 조직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 귀하고 소중한 자산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협동 조직으로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는지가 드러날 것이며, 이런 인정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노동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노동의 정의가 바뀔때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노들 장애학 공리소 연구활동가)

진행 : 미담 노동팀

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간사)

기록 : 진아

<미담>은 ‘노동’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정의를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제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를 거듭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에 집중하다 보니, ‘제도와 안전망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권리중심의 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의해왔던 ‘노동’의 개념은 지극히 시장과 자본에 의해서만 정의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 과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시장에서 말하는 생산성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서 공공을 위한 모든 영역의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되고, 그런 노동을 통해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라면, 어쩌면 지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해온 생산성과 가치에 대한 정의의 전환을 위해, 현재 노동시장에 균열을 내는 '권리생산노동'의 정의를 제안하는 정창조 연구 활동가를 만나보았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일개미 : 권리중심의 일자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조 : 정확한 용어는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입니다. 약칭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하는데요. 2020년 7월 1일부터 260명이 10개 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적어서 장애인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비장애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보통 자본에 의한 착취인데, 장애인들은 '착취당할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장애인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표현도 종종 사용합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 지속해서 공공 일자리 1만 개 구호를 외쳐왔어요. 그런 것들을 요구해오다가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어서 2020년에 이 일자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렇게 세 가지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직무들은 명확히 딱딱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이 직무들을 유동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의 경우에는 기업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직무에 넣자는 제안이 있어서 포함하였습니다. '권익옹호 활동'이라는 것을 들으면 뭔가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투쟁이나 캠페인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상 버스를 홍보하거나, 상점이나 편의시설 등에 접근이 힘든 것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저상버스는 것이 장애인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 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한 번

이라도 더 보고 가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여러 기관들에
항의 활동도 하고, 장애인 인권 관련 제도, 법 투쟁에 참여하는 것 역시 권익
옹호 활동에 포함되고요.

2008년도에 한국 정부가 UN 장애인 권리 협약(UNCRPD)을 비준했
는데요. 이 협약을 한국 사회에서 실질화하고 실현하고 전 사회적으로 홍보
하고 하는 직무도 포함하고 있어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알리는 여러 활
동을 하는데, 그 이름만 보고 가도 공익적으로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하면서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일개미 :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260개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
로 이 일자리를 넓히시는 게 목적이신가요?

창조 : 내년에도 서울시에서는 올해보다 예산을 2배 측정했어요. 그래서 작
년보다는 조금 조건이 나은 상태에서 이 일자리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경기도도 내년에 이 사업을 작게나마 시행하기로 했어요. 전국
화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복지 일자리가 33개의
직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4번째 직무로 저희가 주장하는 권
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들을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권리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해요. 이유는 권리중심이라는 말이
너무 가치 지향적, 정치적이라는 건데, 권리라는 이미 보편적으로 동의된 가
치가 왜 이런 이유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권리중심 일자리
라는 이름이 빠질 수는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의 전국
화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개미 : 통계자료를 보니 취업한 장애인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취업한 장애인분들은

주로 어디에 종사하고 계셨나요?

창조 :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라 굉장
히 달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계자료를 보면 경증 장애인들이 제조, 단
순 업무에 많이 종사하셨어요. 최근에는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쪽에 증가세가 있어요. 사회복지 업체, 공공행정, 보건업 쪽에 많이 만들어
지고 있죠. 직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시 일용직을 포함해 불안
정한 일자리가 많다는 점이에요. 정규직은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고요.

고용이 적은 문제는 '의무 고용률' 준수율이 적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고용률
은 1세대 진보적 장애인운동가들이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초반에
는 잘 적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의무고용 준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의무 고용률을 안 지키면 고용부담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하기 때
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하는지를 봐야 해요. 장애인을 고용을 단지 고용부담금 납부
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더 고
용을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일자리를 줘요. 기껏해야 시혜성 일자리죠. 예
를 들어 엘리베이터 잡기와 같은 직무도 있어요. 정말로 억지로 만든 일자리
인 거죠.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청소 업무도 있고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좀
처럼 의무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혜택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개미 :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임금은 어떤가요?

창조 : <최저임금법> 7조에 최저임금 적용 조항이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
관이 허가하는 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규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못 받는 분들이 1만 명 정도 됩
니다. 이분들 중 8천 명 정도가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라고 불리는 곳

에서 노동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못 받아요. 이 법을 근거로 기업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이 사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지 의뢰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작업 능력 평가라는 것을 하거든요. 작업능력 평가가 비장애인 평균 생산성을 100으로 책정해 놓고, 거기서 70% 이상이 넘는 작업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을 줘야 하고, 그 이하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기준이 90%였는데, 지금은 70%이니까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장애인 수가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준은 낮아지자마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장애인이 더 늘어났고, 사상 최고치를 찍어요. 작업능력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적 산정 기준을 갖춘다 해도 평균적인 생산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요. 최근 많이 이야기가 된 장애등급제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등급을 매긴다는 자체가 그렇거든요. 평가제로 하게 되면 과학적 기준이 도입되고,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줄어든 거죠.

일개미 : 엘리베이터 잡기 노동 이야기는 충격적이네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구든 그런 노동을 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하신 권익 옹호 활동, 문화 예술 활동이 원하는 일자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창조 : 그건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노동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무직을 하고 싶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런데 최종증장애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노동 시장에 포함되는 직무에서는 최종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을 찾기가 어

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윤창출을 하려면 효율적인 몸, 자본이 짜놓은 생산과정에 적합한 몸을 갖추어야 하는데, 최종증장애인들의 몸은 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에서는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편 문화예술 활동과 권익옹호 활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점거했다, 자기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여태껏 배제만 당해 온 이 세계에 자기도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세요. 제가 모든 분들이 원하는 직종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물론 어렵죠. 하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이런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권리 생산 노동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아 :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뭐든지 꿈꾸면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장애인일 경우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음에도 지금의 노동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노동 구조는 개인이 원하는 노동이 아닌, 자본이 원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노동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미담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노동으로 인정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주석 : 이야기를 듣다 보니, 초창기에 갈등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역할 군을 제한시킨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 권리중심의 공공일 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둘 다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단체 내 갈등은 없었나요?

창조 : 그런 이야기가 되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먼 큰 꿈은 말씀하

신 것처럼 모두의 노동과 활동이 인정되는 사회이지만, 출발점으로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도 자본이 원하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자는 취지니까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방식처럼 새로운 노동의 실험들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일개미 : 지난 30년간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의 요인은 무엇이고, 지금 주장하시는 공공일자리 제도가 지난 30년과 어떤 것이 다른가요?

창조 : 장애인 노동과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에요. 철학적이고 담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법의 이름 자체가 장애인들의 현 상태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합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들의 현 상태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는 거죠. 원래 이 법의 명칭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었고, 핵심 조항은 의무 고용률이었는데, 90년대 중후반 '직업재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재활'은 부적합한 노동력을 적합한 노동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시장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죠.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현 상태는 비정상이나 정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신체적으로도, 사회적 여건으로 봐도 자본이 원하는 적합한 노동력이 되는 데에는 굉장히 힘든 요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조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맞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계가 전부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어요. 표준화된 신체에 맞춰 구성된 거죠. 그런 환경에서는 일 못 하죠. 그런데 그러한 표준화된 신체만이 '정상 시민'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거죠?

근로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원에는 제약 조건도 많고, 근로지원인이 사내 정보를 알게 되는 게 불편해 파견 자체를 꺼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소통이 어려워요. 문자통역 포함 근로지원인의 노동이 기업체의 정보가 담긴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거죠. 단순히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조건들이 있고, 개인의 물리적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력, 평균적인 노동력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 또 비정상적으로 규정해 버리고, 사내에서도 인사고과부터 해서 업무 수행 전반에서 차별적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까지의 논의와 정책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해서 민간 시장으로 보내는 것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한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참 기만적으로 말하면서요.

심지어 법안에 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직업재활시설도 그런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근로 능력을 높여 민간 시장으로 보내자. 그런데요, 전혀 안 되고, 악순환이 벌어져요. 직업재활시설에 계속 이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곳 자체가 시설화가 되어 버려요. 실제로 직업재활시설 상당수는 노동 현장이 아니라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커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니까 여기서 돌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저희는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현 상태를 존중하면서 굳이 평균적 노동력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노동 패러다임과 장애인 노동권 담론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개미 : 권리중심 노동 기준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정서

적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창조 :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울형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하는 노동자분이 '나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못했다는 거죠. 종종 뇌병변 장애인이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려웠는데, 이 분은 이 일자리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자각을 처음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활동 지원사분과 함께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가 작년 장애인 운동판에서는 꽤 유명한 '박종필 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러워하시면서 상금을 반납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화를 하나 찍고 나서 문화예술활동과 더불어서 권익옹호활동을 한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를 생각하셨다고 해요. 여태껏 자신을 기생적 존재로만 생각해 왔는데, 자기도 모종의 생산 활동에 뛰어들어 보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관계가 새로이 생성된 거죠. 사람들이 본인의 작품을 보고 좋아하고, 공감해주니까. 가치 있는 일을 처음으로 해봤다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스타가 되셨어요. (웃음) 당사자에게는 사회 공공적 차원에서의 가치가 생산된 거죠.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람에게 물질적, 정서적, 정신적 가치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공적 가치 생산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졌어요.

가족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 평가, 점검을 나왔는데 그때 인터뷰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분들이 '내 자식은 언제나 자기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월급도 받고 노동자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오늘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장애인의 가족들은 삶이 껍떡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삶이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들 하세요.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삶에 분명히 기여를 한 거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과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분명한 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저희가 최근에는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쓴 조끼를 입고 캠페인을 해요. 이런 활동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도 노동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동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생산노동

일개미 : 권리생산노동은 어떤 개념인가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드네요!

창조 : 권리생산노동은 제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종종 장애인들이 여태까지는 권리의 보장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장애인 노동에도 적용이 되어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생산을 못 할 거야'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니까 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해도 주긴 해야겠지?' 더 나쁘게는 불쌍하니까 일자리를 그냥 주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직무를 봤을 때, '권익 옹

호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은 분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생산합니다. 즉 실질적인 ‘권리를 생산’합니다. 장애인을 권리 보장의 대상에서 권리 생산의 주체로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권리생산노동’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노동이 도대체 뭘 생산하는 거냐 묻는 분이 많을 텐데,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사례로 들어보죠.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 엘리베이터라는 실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만이 그 엘리베이터를 만든 걸까?’라는 질문을 해보죠. 그 엘리베이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어요. 장애인들이 ‘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싶다’라는 요구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생산물이 장애인들의 삶에, 노약자들의 삶에 왜 중요한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합의하려는 활동도 해왔죠. 즉 엘리베이터라는 생산물은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과 이런 권리생산노동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수주한 자본만이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리생산노동이라는 것이 딱 들었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들과 사물들, 사회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의 모습을 바꾸어 내는, 새로 생산해내는 그런 노동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런 것입니다.

진아 : 미담에서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노동으로 인정된다면,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란 그동안은 생산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노동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조 : 사실 이거를 많이 확장하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직무도 더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권리생산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형태도 공공일자리로, 물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더 큰 기획이죠. 지금은 불인정 노동 일반에 대한, 인간 활동 전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새로이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재생산 노동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사활동을 한정되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노동’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마음 돌봄, 타자들과 관계 맺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재생산 노동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노동들도 함께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주석 : 장애인을 지칭하는 ‘disabled people’이라는 용어도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큰데요.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노동권 위원회가 받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창조 : 굉장히 부담이 되죠. 실제로 해외에서조차 장애인 노동 관련 담론이 정말 적어요. 탈시설, 교육 등에 대한 의제는 많은데, 노동은 잘 안 다루어지죠. 복지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장애인 고용률이 딱히 높지도 않고요. 심지어 장애학의 메카라고 불리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주창한 영국에서도 장애인 노동 담론은 유난히 적어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것은 ‘장애는 개인의 손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손상된 신체가 사회적 관계를 만났을 때만 장애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개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기반으로 삼은 이론이 맑시즘이에요. 그런데 맑시즘을 했던 사람조차 노동과 관련된 담론은 많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해외에서도 정책적, 담론적으로 많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출발 자체가 ‘이 사람은 자본이 원하는 가치를 정해진 시간 동안 생산할

수 없어'인 거죠.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다 보니 장애인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용어인 양 여겨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1세대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소아마비 경증장애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회운동의 큰 의제가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동 투쟁을 함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쟁취한 것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 의무 고용률이죠. 그 이슈가 90년대 후반까지 가다가, 장애인 운동가분들이 노점상을 꾸려서 새로운 노동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업도 있었어요. 이후에는 종종 장애인이 장애인 의제의 핵심이 되면서 이동권, 장애 교육권, 부양의무제 등 복지 수혜와 관련된 투쟁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복지 수혜만 가지고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생적 존재화', '불구화'를 넘어서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 투쟁의 미래 이슈는 노동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웃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

진아 :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 생산성 정의 자체가 시장의 원리에서는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정부도 일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식도 그대로일 것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일처리를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노동 생산성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조 : 현 임금노동 시스템이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이라고 저도 그렇고 장애인 운동 진영에서도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생산성의 평균치를 적정 수준으로 정해 놓는 것이 과연 비장애인 중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는 결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장애인도 임금노동 하느라 힘들잖아요. 지금은 비장애인들도 출근할 때, 돌아올 수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안전망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비장애인들도 언제나 자본주의 시대처럼 일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시간 단위로 인간의 노동을 측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마련되고 나서는 생산성도 다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생산성은 곧 시간이란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가치를 생산해 내야만 의미 있는 노동으로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본이 8시간 고용했으면, 이 사람이 다음 날 일할 수 있는 만큼, 재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도 생산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생산해서 자본에게 쥐여 하는 착취분도 생산해야 합니다. 자본은 그것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자신의 자본을 불러 나갈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 지금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의 생산성 기준이라는 것이 자본을 위해 마련이 된 노동이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지, 결코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이라면 비장애인도 안 힘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비장애인 노동자들조차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자본 중심의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자본이 착취하기 좋은 노동력이 일반적인 노동자가 되다 보니, 어느덧 지금의 임금노동 시스템을 관성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뿐이죠.

생산성 기준에는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한 것도 있고, 자본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생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게 사람들을 보면 자본에게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준 사람이예요. 예를 들어 금융 투기 노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본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사람들인데,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 2010년

대에 엄청나게 자본에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에
게 사람들이 '너희 노동자들의 임금은 너무 높다.'라고 하니, 회사의 CEO
가 '충분히 합당하다.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데?'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금
융 투기 노동을 열심히 해서 자본에 돈을 많이 가져다 댔겠죠. 그런데 반대
로 이 사람들 때문에 파괴된 것을 생각해 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여파가 있어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 상당수가 삶이 파괴되기도
했구요. 다른 예로는 대공장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공장들에서 많은 이윤
을 창출하는 기업,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다고들 해
요. 그런데 세계 전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공장을 막 계
속 돌려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인구의 절멸 시기가, 절멸에 대한 공포
가 가득한 시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세계를 파괴한 노동이기도 한 거
죠. 우리 사회가 생산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노동들이 사실은 세계를 파괴
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파괴하면 할수록 더 생산적인 것이 되
고, 관계 노동이나 권리생산노동은 세계에 진짜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
동임에도 가장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인정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의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
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생산한 것은 생산한 것이고,
파괴한 것은 파괴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이 시대 자체가 문
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진아 : 확실히 생산성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 격차나, 돌봄 노동의 저평가, 필수 노동자의 노동 가치 저평
가 등 우리 사회 노동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지점을 시
원하게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주석 :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도 생산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대안적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말씀하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는
대안적 기준이 있나요?

창조 : 생산성 지표를 과연 수치화해서 평가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어
요. 생산성을 수치화하는 이유는 자본에게 얼마큼 벌어들였는지를 봐서 임
금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임금 책정은
생산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본하고 노동하고의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잖
아요. 지금은 생산성을 딱 수치화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본은 시간을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노동규율을 부과하고, 또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져왔죠. 노동의 생산물
을 수치화하고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활동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진아 : 그러네요. 반면에 파괴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후 위기 등이 굉장히 수치화된 현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 노동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조 : 장애인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회복지 투쟁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 예산을 많이 따면 노동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여태껏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
겨진 거예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사회에서 생산한 것을 받
아먹는, 기생적 존재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노동임이 틀림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생산한다,
세계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생산한다.', '관계, 타인의 감정, 돌봄 등을 생산
한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다.', '내가 생산의 주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
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생산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아 : 노동을 권리로 이야기할 때, 이 사회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으로서의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생활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은 돈을 안 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담에서는 사람들이 꼭 정형화된 일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 운동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하다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어디까지를 노동으로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조 :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고,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노동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죠. 노동이라는 것을 임금 노동이 아니라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 전반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노동의 영역 하면 계속 임금 노동을 떠올려요. 우선적으로는 가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 개념도 아까 제가 생산성 개념을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데요. 교환 과정과 긴밀히 결부된, 즉 자본이 요구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지금의 가치이죠. 그리고 노동가치설에서도 몇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교환이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해왔어요. 이것도 수치화하니 가능한 거죠. 그런데 교환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으로는 분명히 가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가치 개념을 굉장히 국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노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노동은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조금 더 일상적인 개념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임노동의 형태일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

치를 기반으로 보상 시스템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 원칙이죠. 하지만 당장 거기에 도달할 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준다는 것은 차차 지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일한 만큼 안 가져가요. 측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입사할 때, 얼마큼 월급을 받을지 먼저 계약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월급이라는 것이 측정된 기준은 이 사람이 자본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평균적인 노동력을 측정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노동을 통해 얼마큼 했느냐를 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아마 계약한 것보다는 더 많이 일할 거예요. (웃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기준으로만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죠. 과연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해요. 막막하네요. (웃음)

진아 :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창조 : 제가 재할 개념에 반대하고, 노동력 상품이 될 수 없는 자를 노동력 상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장애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께 도리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왜 자본의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라고요. 노동 활동은 분명 각종 가치들과 세계 사물을 생산하고, 동시에 노동자 본인의 변화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변화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변화가 자본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질 필요가 전혀 없으며, 도

리어 권리생산노동처럼 자본의 기준에 저항하고, 현 차별과 억압적 시대에 맞서 싸우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권리생산노동을 통해 이런 걸 꿈꿔요. 우리의 노동과정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저항의 과정이고, 이러한 기존 노동에 대한 저항의 활동이 많아지고 확장될수록, 노동이 더 자유로운 활동이 될 것이라고요. 권리생산노동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생산하는 가치의 차원에서, 그 과정 자체에서도 이 시대와 불화하는 노동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노동!'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외쳐지곤 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눠 왔던 노동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구체화되는 것 같다. 지금처럼 자본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진다. 미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권리생산노동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장에 우리가 완벽한 답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들을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대안적 노동이 실현 가능한 공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통해 인간 노동은 세계 속에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가 해방되고 싶은 노동은, 자본에게 종속된 노동이지 인간 활동 그 자체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노동을 떠올릴 때는 지금과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사회에 의문을 던지고, 균열을 내는 역할은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가 모두의 존엄을,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 변화가 필요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사회를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의 여러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너와 나의 문제로 사회 문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 대한 의문과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가진 단체들이 만나 연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물음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겠다.

현장 이야기 - 당연하지만, 보편적이지 못했던 권리

진행 : 미담 노동팀

*“기업이 잘 되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은 이제 불편하죠.*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명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 주 적용 ▲발주처·임대인 책임 제외 ▲동일한 원인 또는 동시에 ‘2인’ 이상 사망 시에만 적용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이자 핵심이 되는 조항이 모두 빠진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었다.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과도한 엄벌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것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는 행위인지 모호할 뿐만

1 김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여정에 대한 기록”, <매일노동뉴스>, 2021.01.11.



아니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21년 2월 미담 노동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²인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2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우리나라 산재역사의 분기점이 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1.01.14.

Q.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아 : 현재 노동 시장에서 사람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개미 : 재계에서는 기존의 강은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진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기사에서 ‘그래서 필요한 거다. 여태까지 명확한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구조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티몽 :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사업장이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를 적용하는 예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두 규모의 사업장이고, 발생한 사고도 기계 오작동 등의 끼임 사고 등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업장을 제외하거나 봐주는 것이 이 법안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진아 :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수정안을 보면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성장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개미 : 벌써 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

가했다느니, 경영상 압박이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비용 효율이 노동자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진아 :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노동인력이 필요하다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한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사업장을 운영하면 안 된다.

Q.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티몽 : 이번에 여당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퇴보한 법안을 내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아직까지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아 : 우리 사회는 계속 대기업에게 ‘저 기업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같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서 중대재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 대기업의 경우, 효율을 위해 계속해서 외주화를 하는데, 외주를 맡긴 기업체에서 산재가 일어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을 긋는다. 반면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비용 효율을 위해 낮은 단가로 서비스와 용역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장비, 안전 매뉴얼,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기업의 효율성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개미 :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산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산재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예외가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을 이용한 원청업체의 위험의 외주화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보다 노동자 산재에 대해 우리가 크게 분노하지 않는 것 같다.

Q. 산재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티몽 :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중 40~50대 중년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만 조금 바뀔 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과 추락사, 끼임 사고와 같은 사고 경위가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함에도 이들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는 조회 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죽음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일까?

진아 : 노동자 산재 사망을 노동자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정도로만 보도되는 측면도 많은 것 같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일하다 희생되었다고 많이 보도되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은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게 한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에서 더 나아가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 문제제기를 하는 여론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티몽 : 대부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다는 명분에는 많이들 공감하지만, 반면에 노동자의 노동 현실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자의 죽음이 '희생'이나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무섭기도 하다.

일개미 : 최근에는 배달 노동자의 혹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인 목소리가 모이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람들이 노동 의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 따위로 인지하고, 선택을 했으면 주어진 노동 환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파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진아 : 그러한 경향은 노동자를 기업에 종속된 부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노동자를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자가 그런 노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폭력적인 잣대를 들이치는 상황을 봤다.

일개미 : 지금 사회 구조에서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없다. 어떤 근무환경이 좋고, 좋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기업은 그런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한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라는 협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동환경이 개인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만 간주되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계속 노동자 산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진아 :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대안적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 등

최근 대안적 노동을 주장하는 조직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 노동이라면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에 가려진 노동자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보장 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 문제에 대안으로써 등장하기보다는 ‘우리는 협동조합이라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좋아.’ 정도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그럼에도,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진아 : 우리가 앞서 대안적인 노동으로 협동조합 노동, 권리생산노동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는데, 장차 우리가 대안적인 노동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일개미 : 사실 환경 운동은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데, 노동 운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진아 : 사실 우리조차도 어딘가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개미 : 노동이란 나를 포함한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게 진짜 노동인 것 같아서 아직 학생 신분인 내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건 어색하다고 느꼈다. 그러다 보

니 노동 의제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노동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못했던 것 같다.

티몽 : 나 또한 ‘노동’은 내 생활이 걸린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용돈 벌이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노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 의제를 이야기할 때면 ‘내가 노동자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진아 : 노동 의제에 대해서 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왜?’라고 하면 어려웠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동’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사실 노동자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는 노동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로 만난 노동

<미안해요, 리키>¹

작성: 티몽

지금 사회에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가능할까? <미안해요, 리키>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다. 영화 속에는 택배 노동자인 리키와 돌봄 노동자인 애비가 부부로 등장한다. 리키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회사의 말에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택배에 필요한 차를 구입하고, 계약을 맺어 일을 시작하지만 어째서인지 빚만 늘어간다. 방문요양보호사인 애비는 약속된 노동시간을 넘어서까지 일하지만 추가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 회사에 정당한 임금과 쉼 권리를 요구하는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직접 맺은 계약과 그 속에 포함된 지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다. <미안해요, 리키>는 노동의 가성비를 따지는 기업의 모습과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1. 켄 로치,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 2019.

애비의 노동을 만나다

영화는 리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감정 이입이 된 애비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애비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고객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회사의 방침과 달리, 애비는 자신의 고객들을 단순히 돈을 낸 ‘고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그들을 돌본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일 외에도 돌봄 대상자를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돌봄 노동을 수행한다. 하루는 애비가 자신이 돌보던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방문 시간이 초과되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추가 인력을 보충하거나 추가 근무 수당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영화에서 그리는 애비의 노동을 보며 ‘돌봄’이라는 노동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그에 기반을 둔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돌봄 노동의 특성상 회사에서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돌봄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오히려 돌봄 노동 당사자인 애비가 돌봄 대상자와 상호작용하고 경험하여 본 것들을 기반으로 꼼꼼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리는 현실 속 사회는 애비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서 불필요한 손실을 내는 노동자로 인식한다. 애비에게 더욱 눈길이 갔던 까닭은,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사 노동의 전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는 집으로 돌아오면 쉴 수 있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일은 애비의 몫이고, 가정에 일이 생겼을 때 늘 노동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도 애비의 몫이다. 영화에서 만난 애비는 자신의 직업에 큰 애정을 가진 인물이지만, 그의 노동은 가정 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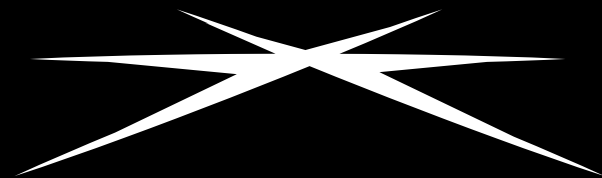


‘부차적인 노동’으로만 인식된다. 영화 초반에 리키가 새로 시작하는 택배 노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비의 차를 파는 장면이 등장한다. 애비와 리키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희생과 양보를 요구받는 쪽은 애비다. ‘방문’요양보호사인 애비에게도 차는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차를 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차를 팔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며 배로 바빠진 일상을 견디어 낸다. 101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애비들이 떠올랐다.

현재의 우리 사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준 <미안해요, 리키>를 보며 분노와 무기력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힘이 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요, 리키>는 노동자 개인이 겪는 폭력적인 구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노동을 둘러싼 구조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노동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신념을 잃지 않는 애비처럼 말이다.

출처 : 다음영화(<https://movie.daum.net/moviedb/photoviewer?id=131391#1313419>)

먹거리



먹거리를 키워드로 우리의 식생활을 돌아보며 육식 중심의 식문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비거니즘’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먹거리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적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지구로 연결하기 위한 실천들을 이어가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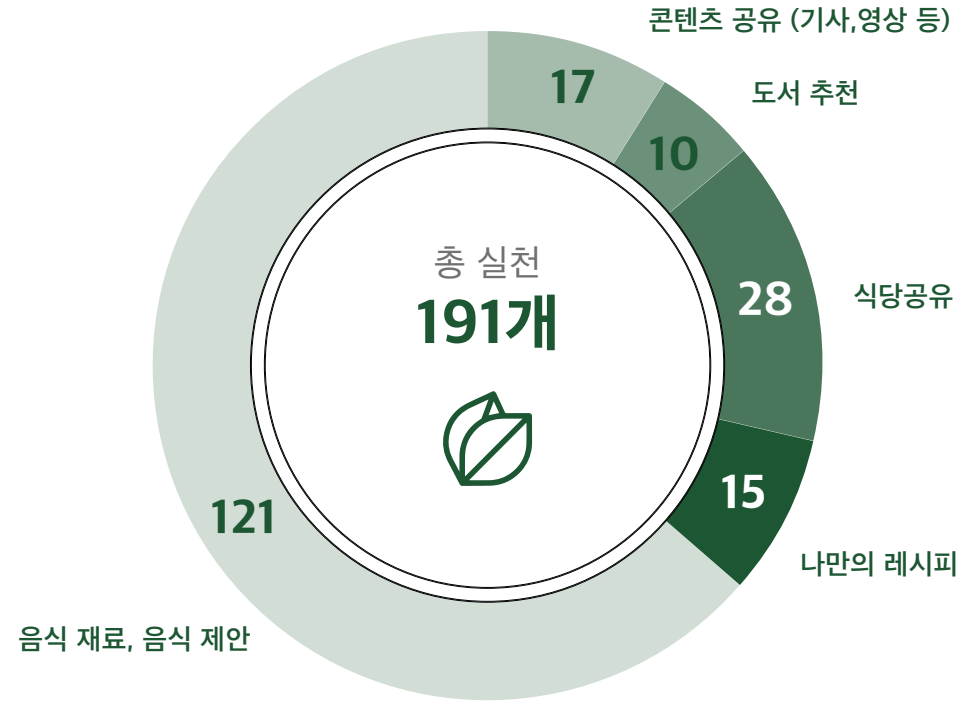
비건 캠페인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한 것들

모두가 행복한 지구를 위한 비건 실천 2주 캠페인

작성 : 진아

미담 먹거리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물을 착취하며 살아온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을 논의하고 확장하기 위해 ‘비건 실천 2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2주의 실천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그린 보선 작가님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을 통해 비거니즘에 대한 더욱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비거니즘과 연결되는 다양한 가치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비건 실천이 단순히 신념에 따른 식이 지향의 변화만이 아닌, 삶 전체를 바꾸어 내는 일이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또 다른 존재와의 연결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동안 인간 중심적 사고와 사회 구조로 인해 보지 못한 존재들의 삶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강연을 마친 후 총 21명의 참가자분들과 2주 동안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미션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나누었다. 개인별 미션과 함께 하는 조별 미션을 정한 후 밴드를 통해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했다.

14일간 참가자들의 실천!



1. 콘텐츠 공유 (기사, 영상 등) - 17개
2. 도서 추천 - 10권
3. 식당 공유 - 28곳
4. 나만의 레시피 - 15개
5. 음식 재료, 음식 제안 - 121개

1조

자주 가는 식당에서 비건 도전해보기/
채식 요리를 하고 인증샷 보내기/ 비건 관련 콘텐츠 보고 소감 공유하기

- 의욕 넘치는 1조는 짧은 회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별 미션을 세 가지 만들어서 다른 참가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 1조 구성원 모두 자주 가는 식당에서 비건을 도전하고, 채식 요리를 해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비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공통적인 변화였다고 해요.

1

2조

2주간 돌아가며 채식 요리 레시피 공유하기

- 순번을 정해 직접 채식 요리를 만든 후 레시피를 공유한 2조. 다채롭고 맛깔난 레시피에 참가자들은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2조는 음식 재료를 고르다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게 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채식을 실천하기 쉽도록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주변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2

3

3조

영화 <도미니언> 보고 짧은 소감문 쓰기

- 영화 <도미니언>을 보고 짧은 소감을 공유한 3조. 영상을 보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로 이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4조

주변 채식 식당 찾아보기/ 채식 관련 도서 읽기/ 채식 관련 SNS 계정 공유하기

- 주변의 채식 식당을 찾아보며 채식 지수를 확인해 본 4조. 서울이 아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식당에 찾아가서 동물성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공감했다고 해요. 4조 구성원 모두 관련 도서와 SNS 계정을 공유하면서 동물권에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4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위한 콜립로드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도서 목록과 레시피

STEP 1 알자

- 자신이 먹는 음식의 기원, 구성성분을 살펴보는 습관을 갖기
-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서 비건 음식 재료, 음식 찾아보기
- 지도에 비건 식사 가능한 식당 저장해두기
- 식품 구매처를 파악해서 활용 가능한 식품 리스트 만들기
- 내 주변의 제품이 동물실험을 하는지 확인해보기
- 채식 동료와 함께 동물권 강의를 듣기

- 요리 도구와 레시피 갖추기
- 도시락 싸다니기 (건강하고 무해한 한 끼를 경제적으로 먹자)
- 팜유가 사용되지 않은 식품과 제품을 소비하기
- 자주 이용하는 구매사이트에서 비건을 검색해서 나오는 물품들을 구매해보기
- 자연 식물 식 지향하기

STEP 2 먹자

STEP 3 쓰자

- 용어를 바꿔 사용해보기(Ex: 물고기 -> 물살이)
-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동물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을 지양하기
- 텀블러, 다회 용기와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기
- 장바구니, 천 가방 사용하기
- 커피 캡슐 택배 수거에 참여하기
- 중고가게에서 옷 사기

- 비닐 포장 없는 가게를 이용하기 (ex. 더 피커, 얼스어스, 지구, 페이퍼 넷츠)
- 마르쉐시장, 채우장처럼 쓰레기 없이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곳에 가기
-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물품 구매를 고민해보기
- 브리타 필터 수거 요청, 두유팩 빨대 제거 요청 등 지지 서명에 참여해보기

STEP 4 적극적으로 지지하자

STEP 5 인간관계로 나아가자

- 비건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 “나 비건이야”라고 SNS와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
-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줍깅이라고도 함),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기!
- 비건 송년회를 보내기
- 비건 지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삶을 연결하기
-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온 것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칭찬해주기!

도서목록

- 고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안백린, 황주영)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피터 싱어)
-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마르탱 파주)
- 우리들의 채식일기 (서울시립대 비거니즘동아리 베지썩썩)
- 매일 한끼 비건 집밥 (이윤서)
- 고기로 태어나서 (한승태)
-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존 맥두걸)
-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 비거닝 (공동저자 10명: 이라영, 김산하, 김사월, 조지 몽비오, 신소윤, 김성한, 박규리, 이의철, 조한진희, 강하라)
- 정면돌파 (크리스 드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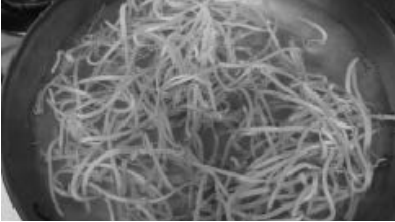
레시피

<햇살바다님의 휘뚜루 마뚜루 숙주우동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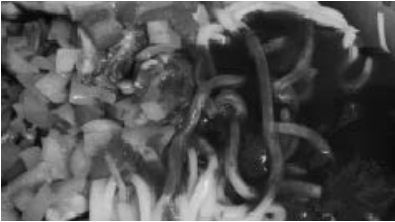
- ①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소스: 고추장 1.5스푼, 연두 1.5스푼, 진간장 1.5스푼, 설탕 1.5스푼, 매실액(대체로 맛술) 1스푼, 마늘 1스푼, 고추기름 0.5스푼! 위를 베이스로 입맛에 맞게 즐기거나 늘려도 OK!)



- ② 집에 있는 채소(아무거나 전부)를 싹 꺼내주시고 손질해서 볶아주세요.



- ③ 숙주와 우동면을 삶아주시고 물을 빼주세요. (숙주 대신 콩나물도 좋아요)



- ④ 우동면과 숙주, 채소와 소스를 한 번에 넣고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면...



- ⑤ 완성!

나에게 비거니즘이란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비건 실천 2주 캠페인
모심과살림연구소 창년다양성포럼 이담(미래를 위한 담론)먹거리팀

모집기간
2020.10.28(수)부터 11.11(수)까지

활동기간
2020.11.16(월)부터 11.30(일)까지

모집대상
비건 실천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선착순 20명)

함께할 활동

- 11/16(월) 19시 <나의 비거니즘 만화> 보신 작가님과 함께하는 비거니즘 이야기
- 11/16(월)~11/30(일) 함께 실천하고 서로의 활동과 고민 공유하기 ex. 비건 관련 도서 읽기, 대체 식품 찾아보기 등등
- 11/30(일) 19시 소강 공유형 나와 우리의 경험 공유하기

*캠페인의 모든 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김진희02-6931-3608, jinoh789@hansolim.or.kr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함께할 때 서로에게 더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

작년 11월, 2주 동안 진행된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비건 실천 캠페인>은 ‘함께’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가족이 함께 비건으로 살아온 분, 캠페인을 계기로 처음 접하신 분, 작심삼일만 반복하다 이번엔 제대로 하리라 결심한 분 등 ‘비건’을 주제로 다양한 이들이 모였다.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갔다. 마지막 닫는 모임에서 각자에게 ‘비거니즘’의 의미와 앞으로의 다짐을 나누었다. 2주간의 캠페인은 끝났지만, 이날의 다짐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지속할 힘이 되고 있다.

나에게 비건이란?

‘나와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울*

‘명료함이다.’

‘내가 뭘 입고 쓰고 먹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기름지고 치우는 것이 힘든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동시에 생각도 명료해지고 몸에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족과 있을 때는 채식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친구를 만나거나 초대할 때는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먹어볼래?’라고 먼저 제안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작은 영향부터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망*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이다.’

우리는 쉽게 동물을 착취하는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보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비거니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도 미담 먹거리팀에서 가장 초보이고 막내지만 앞으로 제 삶 안에서 간단하게라도 계속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용기를 서로에게 만들어준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진아

‘삶의 지향점이자 지속 가능한 철학이다.’

다른 존재를 착취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의 방식은 삶의 전반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비거니즘은 제 삶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지향점이자 철학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삶과 비거니즘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조아

‘지구를 살리기 위해 처음 해본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삶을 지향하고 싶어요. 매번 저녁때마다 귀찮으면 치킨이나 시킬까 생각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선택할 때 이게 옳은 선택인지 항상 고민하고 부지런히 살고 싶습니다. -은*

‘사람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앞으로 맛있는 채식 레시피를 많이 익히고 맛있는 채식 식당도 가보고, 더 즐겁게 채식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

‘노력하는 것이다.’

포기해도 괜찮고, 내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점차 고치고 확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다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소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제 다짐은 앞으로 더 소통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서로 노력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논비건이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영광이었습니다. -마스크비건TV

‘완전 새로운 세계다.’

비건을 채식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었어요. 채식, 도전해볼까?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생각했지 비거니즘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접해보니 정말 새롭고 놀라운 세계였어요.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저는 실천하는 게 아직은 불편하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고추장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상관이지?” 하는 것처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깐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팜유 등 이전에는 몰랐던 문제들도 알아가고요. 오랑우탄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잖아요. 다른 참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건을 지향하는 삶이 자유롭고 힘이 된다고 느껴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지*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그럴 기회가 자주 없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비거니즘은 제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고기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지향하고자 했으나 용기가 없었고 게을러서 쉽게 마음먹기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짐하게 되고 대안을 맛보게 되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저도 부산에서 함께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저의 의심과 어떤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부해나갈 친구들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연대를 꿈꿉니다. -곰**

‘일상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아보며 당연한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작은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현

‘일치의 기쁨이다.’

앞과 삶이 일치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어요. 『아무튼, 비건(김한민)』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에 공감했어요. 앞으로 완전 비건은 아니더라도 고기와 우유를 먹지 않을 생각이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주체적으로 먹고 요구하며, 구성성분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내가 선택한 것만 먹는 자유로움이다.’

비건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가 엄청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자유로움을 갖게 하면서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건은 자유예요. 캠페인을 하기 전 저는 주로 식생활에서의 비건을 떠올렸는데, 이제 생활환경, 의류 등 전반에서 비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통합’인 것 같아요. 앞으로 통합적인 비건의 삶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사회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부모님과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모임 안에서는 환영받고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나요? 캠페인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비건 실천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2주간의 실천 일지를 작성해볼 수 있는 <나의 비거니즘 일지 양식>을 내려받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비건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의 비거니즘 일지 양식>

즐거움을 나누는 비거니즘 식탁, 무지개레이블

썸머, 찬스, 율
(하자작업장학교)

진행 : 미담 먹거리팀
정리 : 기현

육식 중심의 식습관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인지 좀처럼 비건을 실천해야지 마음먹어도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일상에서 만나는 식재료 중에 완벽한 비건 물품을 만나보기 어렵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을 생명에 대한 이야기, 당장 나에게서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무시해 왔던 환경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더는 모두를 외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비건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에, 혼자서는 버겁고 힘들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비건을 알아가고 실천할 방법은 없을까?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런 먹거리 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기 위해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지구의 생명과 환경을 위해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하자작업장학교의 청소년 비건 요리 수업 ‘무지개레이블’로, 하자작업장학교 교사 찬스, 비건 요리 수업을 진행하는 요리사 썸머, 수업에 참여했고, 올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다닐 옥수수 율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옥수수는 페루의 한 일화에 등장하는 5 원소 중 하나로 하자작업장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 이번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왼쪽 위부터) 미담의 기현, 조아, 진아, 하자작업장학교의 썸머, 찬스, 율, 그리고 미담의 소리.

진아 : 반갑습니다. 먼저 ‘하자작업장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찬스 : ‘하자작업장학교’는 ‘삶을 위한 대응과 성장을 사회와 엮어 나가는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어요. 작년까진 3년제였는데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학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년제로 바뀌었고, 필요하다면 1년이 지난 후에도 더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는 율 청소년도 1년을 마쳤고 1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닐 예정입니다. 사회와 맞닿아 있는 학습을 계속해왔어요. 2010년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배우며 활동했고, 2010년 이후에는 생태, 평화 등의 주제로 사회를 공부하고 디자인, 영상, 공연 등의 매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올해부터는 재난사회, 위험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학습을 이어가려 합니다.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청소년들이 있으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진아 : 사회와 맞닿아 있는 활동과 교육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실행한다는 점이 멋있었고, 소개를 들으며 미담과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아 : 이어서, ‘무지개테이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썸머 : ‘무지개테이블’은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비건 요리 교실입니다. 수업의 부제는 ‘감각에서 시작해서 요리하는 손 만들기’였어요. 처음엔 ‘감각 열기’라는 수업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있는 오감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경험을 했어요. 향을 코로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죠. 그 후 6~7가지 토종 콩 맛보기 수업에서 맛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식물성 우유 맛보기 수업에선 대체유

를 같이 맛보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아’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열 수 있도록 준비한 이후에 요리했죠. 한 번은 ‘편의점 음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을 비건으로 다시 만들어봤어요. 샌드위치, 푸딩, 쿠키처럼 친숙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보는 수업들을 진행했죠.



▲ ‘무지개테이블’에서 만든 ‘구운 채소 그라탕’과 ‘샐러드’
(출처: 무지개테이블 블로그)

소리 : ‘무지개테이블’을 처음 기획할 때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계기로 이런 수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쌤머 : 요리 수업에서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며 청소년들이 편의점 음식, 즉 석간편식라는 가장 쉽고 빠른 선택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추가되는 선택지는 레토르트, 배달음식뿐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저나 주위 친구들도 음식을 고를 때 쉽고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대부분이라 비건, 채소가 중심이 되는 요리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건이 되자는 목표보다는 채소의 맛의 즐거움을 알아보고 좋은 재료도 먹어보고 요리도 해보고 주위에 나눠보며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리 : 옹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수업을 듣게 되셨나요?

옹 : 하자작업장에 있으면서 가끔 비건 요리를 먹을 땐 콩고기 같은 대표적인 비건 음식을 접했는데, 비건 요리 교실은 독특하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음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됐어요.

소리 : 이전에 비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옹 : 저는 비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업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진아 : 쌤머님께서 비건 혹은 채소가 중심이 되는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경험을 기획하신 계기는 건강과 선택권에 대한 문제였나요?

쌤머 : 우선 요리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요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비건은 좀 더 큰 의미로 나 말

고도 동물, 환경, 사회 전반적으로 더 많은 범위를 돌보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좀 더 우리 주위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찬스 : 기존에도 요리 수업이 있었지만, 비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요리 감각을 익히는 수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쌤머랑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수업 중 하나로 ‘현미네훈’이라는 농사 수업이 있어요. 여기에선 도시 텃밭을 하며 자연농, 유기농 등 농사의 호흡 속에서 먹거리를 고민해보다면 ‘무지개테이블’을 통해서도 식습관, 식문화를 되돌아보도록 쌤머가 잘 구성해서 진행해줬어요. 왜곡된 사회시스템, 공장식 축산, 육식 문화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날이 서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학교와 청소년들의 생각이었어요. 더불어 학교에서 생태, 환경문제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공장식 축산이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보며 비건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기획 의도였어요. ‘비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건도 맛있을 수 있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의 다짐’에서 출발해 기획하게 되었죠.

기현 : 그럼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참여하시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과 보람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쌤머 : 채소로만 구성된 식사를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아주 짧게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맛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히 있고,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자극적인 맛들이 우리 입에는 편하니까 그게 덜 맛있거나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부반응에 대해서 익숙해져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막상 이야기를 시작해보니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채소 중심의) 음식을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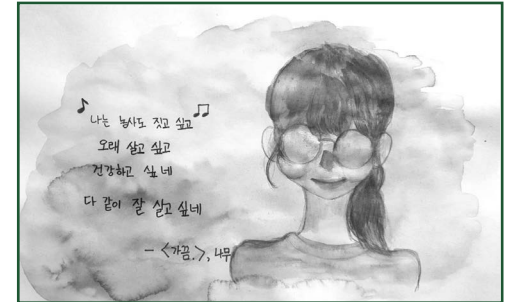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나의 비거니즘 일기>라는 개인 과제였어요. '비거니즘'을 식단이 아니고 하나의 삶의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버리는 것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비거니즘'에 대해 각자 주제를 정하여 일주일 동안 행동해보며 기록하고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옥수수들이 각자의 과제들을 진지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소리 : 개인 프로젝트에서 옴 님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그때 느꼈던 생각은 무엇이 있나요?

옴 : 저는 식단으로 할 자신이 없기도 했고 대부분의 친구가 식단을 지키는 것을 진행하길래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하루에 한 장 비건에 관련된 그림을 그렸어요. 5~6장을 그렸는데 처음에 그릴 때는 학교에서 배웠거나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무엇을 그릴지 찾아보고 검색하다 SNS에 우연히 알게 된 비건을 하시는 분이 올리시는 정보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 싶었는데, 알아보았던 정보들이 계속 생각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조아 : 비건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합니다.

옴 : 친구 중에 몸이 안 좋아서 비건을 선택한 친구에게 잘 모르고 채식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비건'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수업에서는 '비건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여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밥먹게까지 작업이 있어 밥을 먹고 가야 할 때 자연스럽게 비건 친구를 생각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좋았어요. 친구 한 명을



▲ '나의 비거니즘 일기' 프로젝트에서 옴이 그린 그림들
(출처: 하자작업장학교 재학생 옴)

생각하는 마음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조아 : 직접 실천하고 있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무지개 테이블 들으시면서 비건에 관한 생각이 변했는지 궁금해요.

옴 : 큰 건 아닌데 수업을 듣기 전에는 '비건을 한다!' 하면 뭔가 철저히 한순간이라도 다른 육류를 생각조차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업에서 이야기하며 비건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업 첫 시간에 쌤 머님께 "비건이에요?" 여쭙보니 "저는 비건을 지향해요."라고 하신 것이 인상 깊었어요. 완벽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지향하며 실천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했을 때 좋은 영향을 가

져오고, 식사 말고 제품 등으로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소리 : 수업을 진행하는 찬스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옥수수들이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각을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찬스 : 저는 비건을 잘 알기 때문에 기획한 건 아니에요. 비건도 여기서 일하게 되면서 접했고요. 움처럼 원래 비건을 지향하는 청소년을 만나면서 비건을 알게 되었고 비건을 실천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비건을 전혀 모르고 자기소개를 할 때 고기를 무척 좋아하고 채소 싫어한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비건을 왜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고, 급식에서 비건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다가 한 달 정도는 한 친구를 제외하고 4명이 비건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잠깐이어도 많은 변화를 만드는 수업이라는 것을 느꼈고, 다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언가 해내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소리 : 누군가는 비건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건이 우리 사회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음 : 육류나 달걀을 먹지 않고 동물에게서 나온 것을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건인데, 현재는 공장식 축산이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확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고 있잖아요. 적당히 한다면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동물들 간에 바이러스가 돌거나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비건을 지향하면 무엇보다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먹지 않게 되고 그렇게 비건을 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 공장식 축산의 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요. 씬머가 추천해주신 책 『나의 비거니즘 만화(보선)』를 읽었는데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나, 환경과 나, 사람과 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비건은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한 비건을 넘어서 어떤 생물이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 혹은 주변 친구들과 같이 비건을 실천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크진 않아도 조금씩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조아 : 비건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 : (하차작업장)학교에서는 비건식 선택지가 맛있게 잘 나오고, 요리교실도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일반고등학교 친구에게 말하면 ‘우리는 맨날 급식에 우유와 고기가 나오고 학교 끝나면 햄버거 먹고 집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비건을 시도해보거나 실천하기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비건을 지향하기 위해 늘 비건 도시락을 들고 다니거나 식사를 넘겨야 한다면 정말 힘들죠. ‘좋은 건 알겠는데, 못하겠단’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든 개인적인 의사로 혹은 건강, 환경적인 이유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경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환경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볍게 시작해도 좋은 것 같지만, 현재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비건 요리는 사 먹기도 어려워서 다 요리해 먹어야 하니까 ‘오늘 귀찮은데 시켜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직접 할 수 있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현 : 비건 지향이라는 가치가 진보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편견을 갖게 하는 분위기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썸머 : 편견을 갖기보다는 아직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담당자분들도 비건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요. 하자 작업장 학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과는 ‘비건 초콜릿 쿠키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15~20가지의 식물성 재료를 주고 좋아하는 것만 넣을 수 있도록 했죠. 사실 잣 구운 쿠키는 누구나 저항하기 힘든 맛이잖아요(웃음). 또는 한두 번 정도는 비건 요리를 해보거나 식물성 재료가 같이 있는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던져주는 식으로 하기도 해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고치고 채소를 먹이자’ 또는 ‘오늘 당장 비건을 해보자’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같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쉽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인 비건’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방식을 지향해요.

진아 :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썸머 : 반에 10~20명 학생이 있으면 한 명이 맛없다고 하면 모두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혼자 맛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맛이 없다’라는 것도 자신이 느낀 것이니까요.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반응도 재밌어요. 이상하거나 토할 것 같다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흥미로워요. 그러다 이젠 좀 먹을 만하네, 하는 반응도 있어서 좋아요.

조아 : ‘무지개테이블’ 수업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나요?

썸머 :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업이 지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등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모두가 어떻게 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건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함께할 이들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기록하고 잘 남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스 : 수업 방향 면에서, 비건을 지향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편견을 가지고 비건을 바라보거나 비판하는 소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반박하기보다 낙후시키기라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이들을 대했는데,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 상대하지 말자, 하고 대했어요.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낙후시키기(혐오를 혐오한다)라는 방향성은 고민할 지점이 많아요. 고기가 좋다고 하는 이들에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아직 방향성이나 대화의 방법은 고민 중입니다. 이런 고민을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어요.

썸머 : 저도 그 지점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경험들을 쌓는 것이요. 그런 경험들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싫어한 것이 아니니까 먹던 것만 먹는, 그러한 단힌 것을 긍정적이고 재밌는 것으로 바꾸고 궁금증을 던져주는 것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조아 : **웬님은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갖게 된 다짐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웬 : 내가 비건 수업을 들어도 학교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만둘 수도 있는데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말로는 비건 공부하고 함께 나눠서 좋다고 하면서 급하거나 배고프면 편의점 참치김밥을 먹는다면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은가?’하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향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건을 공부하고 지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비건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비건, 비건 행세한다, 있어 보이는 척한다’라고 하죠. (비건이) 좋은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왜 전달되지 않는 것인지 고민이 돼요. 무지개 테이블 시간에 요리를 많이 만든 후에 다 나눠 먹어서 좋았는데 그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다는 마음도 안 통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아 : **저희도 혼자 비건을 실천하는 게 힘들었는데, 미담에서 실천 캠페인을 하면서 20명 정도 모여 함께 실천했던 경험이 큰 힘과 용기가 되더라고요. 수업에서 함께하는 것이 웬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실천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웬 : 뭐든 혼자보다 다 같이 하면 조금 더 힘이 돼요. 제가 어떤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 친구가 ‘내가 먹어보니 맛있다’ 하며 응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이 하자센터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같이 식사할 때 비건, 논비건이 반반이었어요. 비건도시락을 받아와서 먹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면 기분이 좋았어요. ‘이건 별로야, 이건 맛있다’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얘기하거나 비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어요. 비건 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완벽하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니, 나 어제 햄버거 먹었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고 말하며 위로도 해주고요.

기현 : 저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청소년기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웬님은 개인의 식생활에서의 주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웬 : 사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은 청소년들이 갖기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청소년이든 보호자가 해주는 식사를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요리를 잘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주는 밥만 먹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주체성을 갖고 싶다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고 보호자 분이 비건 요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힘들게 왜 하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들과 먹을 때는 옆에서 “근데 우리 비건으로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하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이니 같이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잘 전달은 안 돼서 저 혼자 있을 때만 실천하게 돼요.

기현 : 그래도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멋지시고 부럽다고 생각해요. 또, 하자작업장 학교 자체 분위기 자체가 청소년을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소년, 옥수수라고 부르면서 평등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관계 자체가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아 : 네 맞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장 불만이었던 것이 아랫사람, 학생이 아랫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선생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대학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런 수직적 관계 때문에 뭔가 상상을 하거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위 중심의 수직적인 관계들에 균열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거니즘도 그런 구조적인 것들과 굉장히 맞물려 있을 수 있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시고 새로운 관점들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속해서 사회의 여러 부분에 균열을 내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무지개테이블'의 '허브 페스토 파스타'

(출처: 무지개테이블 블로그 / <https://hpsrainbowtable.tistory.com>)

대화를 나누며 '무지개테이블'은 채소의 맛을 느끼고 다양성을 알아가는 즐거운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존중하며 우리의 비거니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이들, 완벽한 비건보다는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과 '비건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면 더 큰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함께 비건 식당에 한 번 방문하거나 함께 요리해보자고 제안해보자. '무지개테이블'의 레시피 중 하나를 골라 시도해봐도 좋겠다. 여전히 어렵지만,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즐거운 식사가 더 마음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즐거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담이 하자작업장 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 나가고 실천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자작업장학교]

2021학년도 하자작업장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하자작업장학교는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제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삶을 위한 배움과 성장을 사회와 엮어나가는 하자 내 다양한 작업장과 연계하여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상상하고 실험합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인문학과 문화예술 수업을 들으며 자기 진로의 단서를 찾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 하자 내의 작업장 및 외부 네트워크 기관과 연계하여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 : 수시 접수

서류 발표 및 면접 : 접수 후 일정 협의

원서 제출 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지원서 작성

홈페이지 : productionschool.org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ajaproductionschool/>문의 : 070-8871-3940 (월~금 10:00~19:00) / school@haj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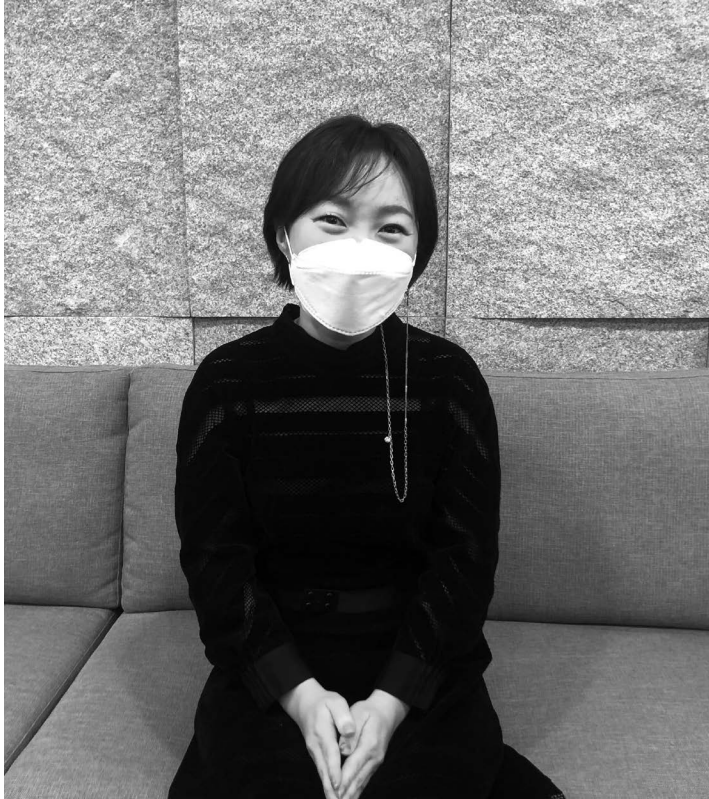
권리로서의 채식을 꿈꾸는 사람들

지현영(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진행 : 미담 먹거리팀

정리 : 조아

최근 동물권, 환경, 건강 등의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일찍이 채식 시장에 주목해 다양한 채식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각지의 학교와 군대에서도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등 채식인을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채식 지향인들이 일상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채식 지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어디서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채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작년 4월, 채식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소원에 참여한 사단법인 '두루'의 지현영 변호사와 함께, '권리로서의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



Q :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로펌에 근무하다 환경 분야의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환경재단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지금은 '두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주로 미세먼지 문제를 담당했고, 개발도상국 환경개선사업 업무와 어린이 환경교육 업무도 맡았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보다는 단체의 다양한 사업 관련 일을 주로 했었죠. 재단 근무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페스코 채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식 페스티벌' 중 황윤 감독님, 동물해방물결 대표님 등과 함께하는 대담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전 그분들에 비하면 채식에 대한 신념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대담이 채식선택의 신념적인 면에 관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두루'는 인권활동에 특화된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곳에서 환경과 인권을 접목하여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총 10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채식선택권 헌법소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권침해 당한 이들을 대리해 진정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Q : 2020년 4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시게 된 배경과 취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녹색당의 주도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전에 입대를 앞둔 분 등 4~5 명이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녹색당의 주도로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권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범주의 단체들이 모여 연대하면서 이슈가 되었어요.

Q : 요건이 성립되는 청구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청구인들은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었고, 채식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비건에 해당하는 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외국에서의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의 동물권 단체에서 활동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본인의 비거니즘 신념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평등법 위반인가, 즉 '그가 정말 비거니즘을 신념으로 갖고 있고, 그 신념에 의해 차별을 당한 것이 맞는지'가 이슈였죠. 당시 검토되었던 것이 양심의 자유인데요. 어떤 생각이 '신념'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본인의 신념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지켜왔는지, 얼마나 오래 지켜왔는지 등을 검증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근거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고,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데이트 상대에 있어서도 비건이 아닌 사람과는 만나지 않았고, 본인이 먹을 식단이 없을 때는 굶는 것을 선택했던 것 등 여러가지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런 사례에 준하는 정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다. 우리도 채식이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집요함과 끈질김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수집이 미흡했고, 성립되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비거니즘 신념을 계속 지켜왔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Q : 채식주의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기억에 남는 청구인의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고로 만난 분 중에는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고기 성분이 들어간 것을 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맨밥만 먹게 된거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공통적인 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과 소외였죠. 다들 급식을 먹는데 혼자만 도시락 싸 와서 혼자 밥을 먹어야만 하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불공정함도 있었어요.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 본인의 채식 지향에 대해서는 고려 받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비용을 똑같이 내야 하거나, 급식도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데 급식비는 동일하게 모두 내야 하는 것 등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청구인 분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모집을 SNS로 받아서, 여러 청구인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위 사례처럼 촛촛하고 집중적으로 청구인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하지는 못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밀접하게 진정인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Q : '채식선택권'과 직결된 기본권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거론했던 것이 생명권, 건강권도 있었고, 양심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도 연결돼요. 건강권은 '본인이

채식하기로 결정했는데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토피 등의 질환에 육식이 좋지 않아서 채식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육식이 건강에 위협이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사례들과 맞닿아서 미국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되었던 법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할 때는 영양을 꼭 갖춰서 제공할 것’ 이런 조항이 규정되었어요. 그리고 ‘채식 식단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이 함께 규정되었죠. 이미 그 나라에서는, ‘채식하는 사람에게는 채식을 줘야 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고,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양질의 채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어요. ‘좀 더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거기까지 나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공급식 이슈에서,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는 자기 결정권이나 신념에 대해 주변에서 끊임없이 저항을 받게 됩니다. 타인들에게서 늘 ‘왜?’라는 질문을 받거나, 이상한 눈빛을 받곤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자기결정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권의 측면도 있어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임과 동시에 환경보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기도 해요. 채식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환경권이나 환경보호의 의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채식선택권 보장의 사회적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채식인은 지금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데,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큰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해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이 권리로서 인정받고, 당연히 어느 식당을 가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 한국의 채식선택권 보장은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진적인 단계에서, 아주 조금 나아간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존에는 채식주의자라 하면 이상한 사람, 독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제 친구들 몇몇도 예전 신입사원 때 고충을 겪었더라고요. 본인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모르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한다든지, 왜 안 먹냐고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그런 강요들이 몰상식하게 여겨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여전히 헌법소원 관련해 기사가 나면 “국가가 개인 취향을 어디까지 받아달라는 거냐”, “그럼 나는 이것 싫어하는데 ‘이거 빼줘’ 할 수 있느냐”며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어요.

Q : 채식을 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현재 채식선택권 보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화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신이나 일반적인 집단의 특성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문화에 대한 반감,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채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몰이해도 문제고요. 육식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던가, 공장식 축산 구조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던가, 이

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채식 선택을 제공할 때, 예산이 한계였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교 급식에서 따로 채식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예산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 ‘주 1회만 다 같이 채식’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죠. 이것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채식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죠. 물론 이런 정책이 보편적인 채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지만요. 실행 측면에서는 예산이 채식선택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곤 해요.

Q : 채식선택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잘되어 있는 사례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아예 공공급식에 기본값으로 채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법에서는 영양 균형에 관한 규정도 있고, 채식 메뉴의 가격이 더 비싸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죠. 그렇게 전면적으로 법제화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법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입법 청원을 시도했었는데, 청원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실패했었죠. 미국은 주별로 병원이나 군대 등 식사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곳에서 채식을 제공해야 한다거나, 종교적 신념을 지닌 이들에게 종교에 맞는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요일’을 정하는 등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기 없는 월요일 등 문화 운동적 측면에서 시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Q : 채식은 단순한 선택권을 넘어 공공에서 채식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채식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둘 때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공감해요. 헌법소원도 함께하고, 여러 가지 채식 관련 입법 운동을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는데, 저희끼리 ‘입법이 되면 제도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대중의 거부감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입법과 더불어 교육과 공론화가 병행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전범선 씨가 문화기획사 ‘두루미’에서 서울시 ‘채식학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저희와 논의할 때, “채식학교가 ‘채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런 측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채식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환경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전국에 환경 교사가 30명도 안 된다는 문제를 접하기도 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찬반이 있습니다. 환경이 정규교육화되면 시험이 될 것이고, 시험을 보면 맞다/틀리다 식으로 환경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요. 환경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자연에 나와서 경험하고 느끼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죠.

동물권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가장 와 닿았던 표현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를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그 사회의 인권과 문화의 수준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보지

말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동물 학대 행위에 재물손괴죄만 적용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 차별금지법은 법적인 처벌의 힘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 제정이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소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입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도 ‘아 이게 권리로 인정되었구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힘이 있습니다. 울산이나 광주 등 지역에서 조례도 만들고 많은 시도가 이뤄졌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례와 같은) 하위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법만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우니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 같고, 담당자가 바뀌면 흐름도 끊기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하위법 제정이나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입법은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헌법소원이 실패하고 나서 다음 시도로 학교 채식선택권 인권위 진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을 시도했던 것 자체가 채식 입법 운동이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줘서, 그 사례로부터 배움을 얻어서 다음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진정 이후로 군대 내에서는 채식 반영이 되

고 있는데, 식단을 보니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진 식단이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Q :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특히 학교에서의 채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영양사분들께 먼저 채식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맛있는 채식 요리에 대한 교육도 하여, 아이들이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 같고요.

Q : 현재는 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학교 채식 관련해서 재학 중인 학생 중에 비건 진정인을 찾아서 인권위 진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단위에서는 각자 역할을 나눠서 변호사들은 진정 준비에 집중하고, 채식 확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법 운동을 추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진정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아는 학생이 있으시면 저에게 소개해주세요.

Q : 진정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다뤄질 예정인가요?

인권위원회에 권리 진정이 가능한 기본권은 헌법 10조에서 22조까지 규정된 권리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권은 사회권이다 보니 그 범위에 포함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 이슈를 권리에 대한 진정을 할 때 함께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양심의 자유와 건강권, 자기결정권에 집중해서 진정할 계획입니다.

Q : 앞으로 채식 운동에서 필요한 고민과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채식 운동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엄격한 비건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비거니즘만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측면에서 소고기부터 줄이자는 온건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채식 운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채식을 주장하는 것이, 물론 존중받아야 할 신념이지만, 아직은 대중에게는 거부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채식에 관심을 갖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환경적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농업 과정에서도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전기료가 특히 저렴한데요. 하우스 재배로 열대작물을 기른다는지 하는 상황에서는 꼭 채식한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식을 넘어서 '로컬 먹거리'로 고민을 확장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 로컬 먹거리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입 먹거리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운송 과정 중 불필요한 배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서 최소한의 운송으로 먹거리를 거래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요. 식량 자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어떤 재난적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식량난으로 식재료 유통이 끊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식량자급률이 낮아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마트에 가도 살 식품이 없는 경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프랑스는 이런 문제에 잘 대응하려 고민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로컬푸드,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래에 이러한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 먹거리는 비싸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로컬 먹거리는 왜 비쌀까?'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량 생산일수록 비싸고 대량 생산일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자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위치에 놓일 겁니다.

로컬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은 그런 (자본과 생산자 간의) 불공정 거래에 저항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산 커피 등의 영역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내가 먹는 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내가 입는 게 어디서 오는지 모름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분업화되면 효율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되는,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에서 그리는 모습 처럼요. 실제로 '생활의 A to Z를 내가 해낸다', '내 먹거리를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공동 텃밭을 가꾸는 것

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그런 (자연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욕망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Q : 채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채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당에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그때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 확 다가오게 되었죠. ‘저렇게 고통스럽게 자란 동물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죽을까. 그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게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에서 채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외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며 식사를 하니깐, 어디 가서 적당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먹다 보니 별로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밥, 빵)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도 별로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채식을 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가졌는데, 굉장히 행복했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채식을 일주일이라도 해본다면, 누구나 좋다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식의 긍정적인 경험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Q : 지현영 변호사님에게 ‘채식’이란 무엇인가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채식이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옛날에 봤었는데, 보고 나서 채식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실 저도 튀는 일은 안 하고 싶고, 남들이 먹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서 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내일(Demain)>이라는 프랑스의 환경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환경을 위한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한 기분이 들게 마련인데, 그 영화는 희망찬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채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 차별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채식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곤 한다.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스스로 먹거리를 선택하고 지속 가능한 밥상을 고민하는 일은 개인의 유별난 취향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장려되어야 한다. 채식선택권 입법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교육, 공론화의 노력, 지속 가능한 채식을 위한 로컬 먹거리 활성화 등 채식 운동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고민과 실천의 영역 또한 남아있다. 인터뷰 말미에 지현영 변호사가 추천한 <내일(Demain)>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듯, 비거니즘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실천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어본다.

[생명 이야기] 감춰진 삶을 보는 힘

은영(DxE, 서울애니멀세이브 활동가)

진행 : 미담 먹거리팀

정리 : 소리

동물의 삶은 언제, 어디서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을까? 모순적이게도 당장 내 주변만 둘러봐도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생산되는 물품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은 동물의 삶을 통째로 빼앗아 먹거리로 삼는 일부부터 시작해서 의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동물을 착취한다. 품종 개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동물의 탄생까지 조작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해가 지날수록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하여 공장식 축산을 둘러싼 전염병은 더욱 빈번하게 예상치 못한 규모로 발생하고 동물은 무참히 살처분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의 죽음은 생명이 아닌 수치로, 얼마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계산’될 뿐이다. 우리 인간종은 왜 함께 지구에 살아가는 다른 종을 당연하게 대상화하고 타자화하고 있을까. 여기에 감춰진 폭력의 현장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자각’을 시작하자고 말하는 활동가가 있다. 직접행동을 통해 사회구조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동물권리장전을 외치는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이하 디엑스이)에서 기획을 맡은 사람. 동시에 서울애니멀세이브를 진행하는 은영 활동가를 만나 주체로서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현 : 활동하고 계신 서울애니멀세이브와 DxE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영 : 먼저, 서울애니멀세이브(이하 세이브)는 토론토 피그세이브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애니멀세이브무브먼트의 챕터들 중 하나로 도살장이나 농장, 수산시장에 찾아가서 감춰져 있는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운동방식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풀뿌리 운동으로, 지역마다 세이브운동의 성격이나 방식이 다양하고, 진행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주요 활동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도축 운송 차량을 잠시라도 멈추어 동물을 만나려고 합니다.

디엑스이는 세이브와는 활동 방식이 다릅니다. 동물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현장을 찾아가 마주하는 세이브 활동이 있다면 디엑스이는 동물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폭력이 소비되는 공간, 일상적이기에 더욱 폭력적인 공간들로 갑니다. 식당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요. 이와 같은 산업에 의해서 폭력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의식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엑스이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겉으로는 폭력이 드러나지 않는 평온한 현장들을 깨뜨립니다. 당연해진 현장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문제와 관련된 담론을 어떻게든 촉발하는 거죠.

디엑스이 활동은 비폭력 직접행동 풀뿌리 네트워크예요. 시민 불복종의 운동으로 거대하고 부정의한 산업을 비폭력의 힘으로 맞서 변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고 비폭력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이에요.

기현 : 방금 '깨뜨린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번 미담의 잡지가 생각났어요. 잡지의 주제가 바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제와 딱 맞게 연결되는 소개를 해주셔서 새삼 기획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19년도 말복 대비 올데이 비질 도살장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간혀있는 아끼 닭이 비질 참여자가 건넨 물을 힘겹게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애니멀세이브)

비질, 또 다른 생명을 마주하는 일

소리 : '비질'이라는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비질은 어떤 경험인가요?

은영 : 먼저 비질이라는 용어 자체는 철야 기도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를 활동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비질은 폭력의 현장을 마주하는 데에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보통 축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떨어져 있고, 잘 모르니까요. '이런 게 문제겠지'라든지, '동물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서 이야기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시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도살장이 있고, 그 안에서 동물들은 계속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어

요. 우리 주변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직접 보지 않은 채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많고, 동물을 대상화하기도 쉬워요. 비질은 진실을 찾아가서 마주함으로써 문제를 이야기해나가는 경험이라 생각해요.

소리 : 비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은영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활동가들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매주 비질이 진행되는 때도 있어요. 비질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활동가들이 공식 SNS 계정에 비질 일정과 신청서를 올리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이후 신청자들에게 일시, 장소,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모두 약속에 맞춰서 모이면, 비질은 시작됩니다. '함께 만난다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파생되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리 : 참여자들은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나요?

은영 : 계절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물을 준비하려고 해요. 동물들이 매우 목말라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왜 물을 주냐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건 고통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든 물을 마련해서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비질을 가면 그런 마음이 강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걸 느낄 거예요. 절망감, 슬픔, 더 큰 의지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기록하지만, 현장에서 벗어나자마자 목격한 현실과 동떨어지게 돼요. 도시는 너무 깔끔하고 비명도 들리지 않잖아요. 죽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상품만이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격했던 진실을 잊지 않고 알리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소리 : 은영 님이 '비질'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은영 : 제가 비질에 처음 참여한 건 19년도 지구의 날이에요. 고통받는 동물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기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져요. 어떤 문제의식이든지 그렇겠지만요. 아직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달하고 싶은 거죠. 변하지 않는 세상과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진 활동가들이 모여서 문제의식을 나눠보고자 시작했고, 저도 동참한 거죠.

비질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외국의 한 활동가가 만든 '왜 우리가 이런 활동(비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저와 체구가 비슷한 활동가 한 명이 외국 도살 차량을 맨몸으로 막는 거예요. 외국의 도살 차량은 한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짐채만큼 큰데도요. 차가 들이박을 것처럼 코앞까지 와서 멈춰 섰어요. 그 활동가가 울면서 차를 멈춰 세우고, 다른 활동가들이 동물을 보기 위해서 차에 달라붙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는 '나도 이걸 해야겠다'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에서 활동가들이 동물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기억하려고, 내가 뭘 변화시켜야 하고, 왜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산업이 감추는 현실이 무엇인지 마주하기 위해 달라붙어요. 그곳에서 동물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어린 동물들이 갇혀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당장 동물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자고 마음먹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공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보고,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험 준비를 그만두었어요. 더 멀리 본다는 것이 제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행동을 통해 명확한 변화를 만들고 싶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질을 시작했습니다.

소리 : 한국에서 비질에 참여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씀해 주세요.

은영 : 2019년에 비질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느꼈던 것이 정말 많았지만 몇 가지 경험을 꼽아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추석 대비 비질이었는데 추석에는 한우상품 때문에 소들이 더 많이, 새벽부터 죽거든요. 도살장 인근 지역에 방을 잡아놓고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에 도착했는데, 벌써 도살된 시체를 냉동고에 넣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어서 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젖을 너무 많이 짜여서 젓꼭지가 찢어져 없어진 소가 있었어요. 얼룩소를 계속 임신을 시켜서 우유를 짜내잖아요. 우유를 짜내다 보면 얼룩소는 태어난 지 2, 3년 만에 몸에 칼슘이 다 빠지고 말라비틀어져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더 이상으로 우유를 생산해 내는 가치가 없으니까 바로 고기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런 소들이 도살장에 많이 오는데, 그때도 그런 소를 만난 거죠. 서 있지도 못하니까 주저앉아 있었어요. 트럭에서 피가 막 흐르고... 좀 더 앞으로 가니까 소가 더 있었어요. 동물마다, 종마다 습성이 다 다른데, 소들은 대체로 겁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려요. 어떤 소에게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위로 쳐다보는 제 얼굴에 눈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로 울더라고요. 그 소는 모든 사람이 사실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해치는 사람들밖에 보지 못했을 테니까 정말 무서울 텐데도,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도 오히려 얼굴을 비볐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 두 눈에 제가 비치고... 도살장 옆에 바로 죽은 소들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도소매 업장이 있어요. 거길 방문해서 소의 얼굴을 보면, 항상 이마 가운데 총 자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골곰탕을 먹기 위해 사는 소 머리가 절단되어서 진열되어 있거든요.) 보통 총 자국은 한 발 있는데, 한 발에 죽지 않으면 두 발을 맞기도 해요. 문득 제가 쓰다듬고 있는 소의 머리 부분에, 몇 분 후면 총 자국이 맞춰질 거라는 사실이 연상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던 순간에 차가 쪽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던 눈동



▲ 19년도 추석 대비 새벽비질 도살장 앞에서, 착유를 마치고 뼈밖에 남지 않은 소가 눈물을 흘리며 활동가들을 마주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애니멀세이프)

자가 아직도 선명한데, 손에 촉감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절망감을 허공에서 느꼈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비질을 침착하게 진행하는 편인데, 그때는 도살장 앞 바닥을 맨손으로 치면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 죽은 것처럼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답답해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기억나는 순간은 계류장이라고 도살되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공간이 있는데요. 어떤 돼지가 거기를 뛰쳐나와서 도망친 거예요. 저랑은 방역 터널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멀리 있는 상황이었어요. 돼지가 방역 터널 너머로 도망을 치다가 엄청나게 맞아서 질질 끌려갔어요. 저는 그 너머에서 무력하게 보면서, ‘정말 이걸 저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런 현실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비가 오던 도살장이나 그 앞에서 잠을 자던 동물들의 순간들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가 오면 어떤 돼지들은 비 냄새를 맡고 싶어서 철창 밖으로 발과 코를 뻗어요. 철창에 갇혀 오물을 뒤집어쓴 방식 말고 다른 온전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절박한 몸짓들이 보여요. 아기 돼지들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정도도 안 된 나이인데 도살장에 와요. 차를 타면 멀미를 많이 하니까 졸려서, 서로서로 몸에 기대서 쉼쉼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순하게 잠들어 있는데 그 잠든 곳이 도살장 문턱이라는 것을 그걸 지켜보는 저는 알고 있으니깐요. 이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도살장 문턱에서 '고기'의 목적만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끔찍한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소리 :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 장면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꼭 미담도 비질을 참여해보고 싶어요. 비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영 : 먼저 사람들이 제 이야기만 들을 때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비질에 오면, 그 공간에서는 동물에게만 집중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행하는 활동가만 안내하느라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참여자 개개인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질을 함께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매번 놀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경찰이 비질에 참여하러 오기도 하고, 선생님, 국회의원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마주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미 꽤 생겨서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느끼고 그것이 모이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아 : 더욱더 많은 사람이 '비질'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만나고 기억하는 경험을 한다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하고 동참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시나요?

은영 : 네, 그럼요! 함께하면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현실을 만나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는 동물의 존재가 마치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져요. 근본적으로는 '동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비질에 와서 사람들이 현장의 존재들을 직접 만나는 것, 이곳에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직접 맺는 것. 그것은 개개인의 만남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변화든 만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직접 가서 마주한다면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문제, 분리되어 있다고 느껴져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기도 하다는 걸 다시금 아프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마주함으로 내가 주체가 되고, 동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동물권을 보장한다는 것

조아 : 동물권은 무엇인가요?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 동물복지보다 동물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은영 : 동물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동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통용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잘 되어있지 않아요. 동물 인권이나 동물 보호로 바뀌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동물권은 보호나 복지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온당히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인간 권리 자체를 처음에 선언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파생한 것처럼, 동물권을 선언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권이랑 다르지 않고요. 저는 인권 이전에 동물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배우

지만 사실 권리는 굉장히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잡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한정적인 권리일 때도 있고요. 권리는 우리가 만들어어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언된 거잖아요. 그게 동물 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인간 내에서도 특정 권력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논의되어온 ‘권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로써 동물권을 주장해요. 동물복지와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동물 복지 운동의 이유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동물복지를 통해서라도 당장의 고통을 줄여나가야 할 만큼 동물의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설명이 됩니다. 정말 맞아요. 동시에 그만큼 궁극적으로 동물 고유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권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항상 착취되고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시혜적으로만 권리가 이야기되는 방식은 폭력적입니다. 선언적인 운동 없이 동물복지만 이야기되는 사회는 ‘동물이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고 동물권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해요. 동물권과 상반되는 상황을 빚어내기도 하고요.

조아 : 동물복지라는 타협이 고통의 총량을 줄인다는 의미를 뺄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통을 사라지게는 못하고 있고, 때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동물권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영 : 동물이 너무나도 수단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사회가 점점 내가 식품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제품이 의식을 가진, 나와 동등한 인식을 가진 동물을 살해해서 만들었다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동물복지랑도 연결이 되어있어요.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나



▲ 착유당한 어린 소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 설 새 없는 착유의 고통으로 젖꼭지는 찢어져 있고 운송트럭에는 피가 흥건하다. 좁은 공간에서 인간만을 위해 젖을 빼앗긴 어린 소는 칼슘을 잃고 골격이 약해져 기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명 다우너소가 되어 줄을 이어 도살장에 들어온다.

(사진제공 : 서울애니멀세이브)

비거니즘에 대한 담론들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도살량 또한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규모 축산에서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줄여줄 수 있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건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만큼 자본주의의 성장 속도도 그치지 않고 동물공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줄곧 동물을 수단화 해왔기 때문에 ‘이게 권리 운동이다. 이 이면에 존재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지 문제로만 인식이 되거나 동물이 이면의 존재 자체가 아닌 상품의 선택지라면 이야기된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조아: 동물권은 단순히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차별주의, 비폭력주의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운동들과의 교차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동물권 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영 : 맞아요. 연결되죠. 폭력의 양상이 동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차별하며 터부시해왔고, 쉽게 몸을 함부로 도륙하고 감금할 수 있다고 판단하죠. ‘존재를 수단으로 보고 착취하면서 이윤만을 생각하는 구조’가 동물에서 시작했고요. 인간 종이 다른 종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같은 종에게도 그런 폭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이 너무나도 연결되어있어요. 노동, 페미니즘, 난민 문제도 그렇고요. 이걸 전혀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조적인 피해예요. 이 문제의 근본은 분명히 동물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동물권을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동등한 인간임에도, 잘 인식되지 못하는 인권이 있어요. 같은 종 내에서도 적나라한 차별을 받으며 무시당하거나,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죠.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의 극단적인 면을 동물에게서 볼 수 있어요.

또, 동물권이 비폭력주의와 연결이 되는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폭력적인 세상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간혹 동물권 직접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의식을 촉발하는 것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서 ‘폭력’이 평범해진 상황은 어떨까요? 폭력의 구조가 당연시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폭력이 괜찮다고 지속 가능하다고 속이는 것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로’ 폭력적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살장에서 동물을 죽이는 사람이나 도살장에서 죽인 동물을 먹는 사람이나 그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잘못이거든요. 그걸 당연하다고 믿은 사람들도 부수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이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비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연대의 의미로서도 비폭력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건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달라서 무섭고,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요. 그건 이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감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간접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일 뿐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해요.

기현: 동물권 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들이 다른 권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난민 문제에 대한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태도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 동물권리장전 도살장라다운 항소 재판 선고일 디엑사이 액션. 활동가들은 인간만을 위한 법정에 맞서 피로 물든 천칭을 들고 변화될 세상을 선언했다.

(사진제공 : 디엑사이코리아)



◀ 동물권리장전 도살장라다운 1심 변론일. 도살장을 점거한 활동가들이 법정에서 동물을 위한 변론을 마쳤다. 기획자 은영과 향기의 범원 앞 눈물나는 포옹모습!
(사진제공 : 디엑사이코리아)

동물권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

기현 : 지난 2019년, 디엑사이에서 하셨던 동물권 직접행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영 : 디엑사이는 2019년 1인 방해시위로 액션을 시작했어요. 어느새 우리에게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평범한 고깃집에 들어가서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피켓을 들고 스피치를 진행했어요. 첫 액션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행동방식에 대한 논란이 아주 컸어요. 온갖 신문과 방송 심지어는 일본 아침방송에도 30분 동안 방영되었네요. 방해시위는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담된 끔찍한 구조를 인지하고 이를 알리고 함께 변화하기 위한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가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해 디엑사이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간 중심적인 선을 과감히 넘습니다. 핵심가치는 ‘맹렬히 비폭력적일 것’이에요. 동물의 문제를 온몸으로 드러내며 폭력적인 사회의 인식에 도전합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잠재되어 굶아있는 폭력성을 촉발시켜 비로소 사회에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게 합니다. 1인 방해시위를 시작으로 마트 방해시위, 야구장 방해시위, 백화점 방해시위, 패스트푸드점 방해시위, 페스티벌 방해시위, 패밀리레스토랑 방해시위, 푸드코트 방해시위... 정말 많은 액션을 했어요. 그리고 도심의 현장뿐만 아니라 농장의 현장으로 가서 폭력적인 현실에 놓인 동물을 보란 듯이 구조하는 ‘공개구조’도 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정해놓은 종차별의 기준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직접 농장의 경계를 넘어온 농장동물이 온전한 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구조한 새벽이가 지금 농장동물에서의 생인 6개월을 넘어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생추어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 용인에 위치한 도살장 앞, 2019년 ‘세계 동물의 날’에 활동가들이 콘크리트로 몸을 결박하여 도살장 입구를 막았다. 활동가들이 몸을 결박한 가방을 해제하고 그 안의 콘크리트를 발견한 경찰들이 당혹한 모습. 활동가들은 죽기 직전의 도살차량을 목전에 두고 연대의 스피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디엑스이코리아)

기현: 2019년에 최근에 항소심이 있었던, 닭 도살장 앞에서 하셨던 직접행동 당시 동물권리장전이 적힌 티셔츠를 입으신 사진을 봤어요. 그때 활동의 내용과 동물권리장전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영: 동물권리장전을 말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직접행동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동물과 분리되어 있고, 다음 변화와 다음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기 힘든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동물권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조금 덜 먹고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가질게.’하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권리장전이라는 법제화, 법의 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물권리장전 역시 전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2019년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에 함께 락다운¹을 했어요. 각 지역에서 따로 준비하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하면 파급효과가 있고 연대할 수 있으니까요.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건 ‘먹을 동물’에 대해서 시혜적으로 편의나 복지를 허용해준다는 발상 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종차별적으로 마음에 드는 동물들만 특별하게 대하며 모든 동물에 대한 위안으로 삼는 행위라든지, 멸종위기종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윤을 위해서 당연하게 희생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차단하는 모순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자고 제안하는 거죠. 인권 운동을 하며 우리가 결의

1 도살장 입구를 막으며 동물의 권리를 외치는 동물권 직접행동,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

하고, 맞서 싸운 것처럼 동물권의 법적인 보장을 위해서 동물권리장전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 변화에서 오는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면도 컸어요.

기현 :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일부 활동가들의 특이한 운동처럼 비치기도 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긴 싸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영 : 의의와 한계가 맞물려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한계는 법원에서 ‘사회가 변화하기 힘든 방법으로’ 행동하라고 의도한다는 점이었어요. 직접행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고요. 이러한 법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네요(웃음).

한편으로 초심 항소 같은 경우는 원심의 의견을 인정한다고 나왔는데, 그 원심에서 동물의 법적인 권리의 보장성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법원에서 동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동물을 이렇게 살상해서 먹는 현실이 문제가 있고, 결국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의가 있었어요. 법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물권리장전 락다운 때 글로벌 락다운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글로벌 락다운하면, 뭔가 무시무시한 걸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약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용인에 모였어요.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또, 재판장에서 변론한다는 건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잖아요. “난 동물로써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당하고,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말을, 인권이 쌓아 올린 법원이라는 제도권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 법원에 모였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 동물권리장전 3번은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운동을 하실 때 당사자인 동물이 인간의 방식으로 말하기 어렵기에 이를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고요. 당사자성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듯해요. 법적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려면 어떤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은영 : 만약 어떤 사람의 소중한, 아니면 조금은 더 권력을 가진 인간 동물이 도살장에 갇혀있다면, 삶이 박탈되어서 도살 칼날에 오를 것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면, 지금 활동가들은 범법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상을 받고 있겠지요. 이런 중차별주의 경계를 허물어내는 게 중요해요.

법정에서 권익을 대변하는 것 자체도 그렇죠. 여기서는 법정에서 권익을 대변한다고 말하지만, 법정에서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기에는 법 자체가 문제거든요. 법은 동물들을 죽으라고 내몰아놓고, 더 많이 죽어도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런 현실이 우리와는 떨어져 있다고 사고하게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행동들이 되곤 해요.

법에 있어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 법문에 쓰이고 나면,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타자의 권리에는 다시 무감해져요. 내가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의 합법, 나의 불법’으로만 권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 정의의 문제로 권리를 펼쳐나가는 인식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합법이 꼭 정의를 말하지 않듯이 당연히 지금의 어떤 불법의 영역이 부정의한 것이 아니기도 해요.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제나 부정의할 수 있고 문제를 마주했다면 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하는 게 지당해요. 변화를 위한 직접행동에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20년 2월 14일 밸렌타인데이. 디엑스이 활동가들은 마음을 주고받는 초콜릿 속에 감추어지는 착유되는 동물들을 위한 고통의 연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에게 연대하여 피 흘리는 젖꼭지 분장을 하고 단체로 상의를 탈의했다. (사진제공 : UPI 정병혁기자)

우리가 일상에서 연대할 수 있는 것

진아 : 채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많아지면서요. 이러한 관심의 증가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은영 :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이죠. 사람들은 음식을 볼 때 육식인지 채식인지를 검열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랬던 음식을 육식과 채식으로 구분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육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의 현실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채

식이 갖는 메시지도 그렇고, 함께 사회 집단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 채식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하나의 커다란 운동으로 확산이 된다면, 경계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채식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채식’을 이야기해 나갈 때, 분명 동물당사자의 문제인데 동물은 어디에도 볼 수 없고 어느 순간 동물이 대상화되는 걸 경계해야 해요. 사람들은 동물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불쾌감이 없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동물’을 논의하지 않고, 존재를 가시화하지 않고, ‘취향’을 존중하여 맛있게 죄책감 덜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채식’만으로 동물권 운동이 이야기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동물이 이 담론의 주체가 되지 않고 음식으로 가려진 채로 동물권이 이야기될 때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심한 거부반응을 보여요. 완전한 채식을 하지 않은 내가 동물권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거부감을 보이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에 먼저 정직하게 직면해나갈 수 있어요. 이미 너무나도 계급적인 식량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보다 명확한 동물이 처한 현실,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게 하여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진아 : 동물을 계속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지 않는 쪽으로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체로서, 같은 동물로서 그 권리를 이야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동시에 개개인들은 어떤 노력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은영 :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웃음).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다양한 의미로 제게 다가와요.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가져온 문제의식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하니까요. 신자유주의의 현실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에게, 각자도생해야 하는 세상에서 ‘나’의 역

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곤 해요.

한편으로는 직접행동을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지 묻는 의미도 있어요. 전 이 경계를 허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의 문제, 너의 문제로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정작 내가 힘들 때 사회로부터 돌봄 받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변화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개개인보다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조는 너무 크고 개인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생기면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를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상하려면,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개개인이 존재가 되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내가 돌봄 노동을 해야 하는 품이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품어내는, 공동체로서의 변화가 있다고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아 :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감해요. 그래야 용기도 생기고, 계속 일상의 비폭력운동을 해나갈 영감을 받고요.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활동하시면서 고민이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행동을 결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영 : 활동하면서 매번 고민과 어려움이 변화해요.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요. 나중에 미담과 함께한 이번 인터뷰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때는 이런 점이 고민이었고, 외롭고, 어려웠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웃음). 지금은 공동체의 ‘관계성’이 역시 고민돼요. 서로를, 변화를 믿고 함께하던 활동가가 공동체를 떠날 때 마음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지 고민한다든지요.

공동체를 떠나는 활동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

회가 중력처럼 다시 관성적으로 사람을 끌어가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에서 유별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나가는 스스로가 눈엣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세상의 폭력은 촘촘하게 연결되어있지만, 동시에 개개인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 다양한 양상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비폭력으로 뭉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타자의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과 비교하고 부각하는 순간들을 감수하면서도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서로의 고통을 감수하고 에너지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려움에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해나가고 공유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어요. 경제성과 생산성이 제일 중요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련된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깊게 고민하지 않고 처리해버리면 깔끔하고 생산적이죠. 사회가 폭력적인 만큼 공동체도 언제고 폭력적일 수 있지만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남아서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간다는 게 좋아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조적 문제가 사회에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임을 인지하는 것이요. 그렇게 돌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조아 : 방금 은영 님의 말씀에 미담 또한 위로를 받아갑니다. 앞으로 동물권 직접행동 등 추가로 기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신지, 어떤 것을 상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영 : 네! 구체적인 계획도 있지만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웃음). 맛보기로만 이야기하자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농장에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사람도 더 모이고 서로 더 믿어야 해서 지금은 어렵지만요. 농장에 동물들이 정말 많은데, 그 동물 수만큼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농장에 들어

가고 싶어요. 들어가서 농장을 멈추게 했다는 일차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너무 부당해서 그 곁에 함께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싶어요. 초범이나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정한 현실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당사자 곁으로 움직인다고, 언제든 우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상상 중 하나는, 모든 도살장 앞에 활동가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질 기획을 해서 여의치 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의 도살장에 그 시간'에 저희가 서 있어요. 하지만 폭력이 그 도살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살장만 해도 정말 많으니까요. 그 모든 죽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는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요. 이제까지 저희는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라든지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주로 해왔어요. 좀 더 유쾌하지만 가볍지는 않은 활동들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용기를 내고,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해요. '내가 겪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저렇게 결심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하는 감동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부정의 앞에 우리는 몇몇한 운동을 해나간다는 자신감도 보여주고요. 더 많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큰 용기가 없어도 되고, 재밌어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있다는 다양성을 보여주려고요.

조아 :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고 동물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움직이는 세상이 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은영 : 단순히 도살장만 가는 게 아니라, 디엑스이 안에서 소모임을 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며 행동하기도 해요. 디엑스이 소모임에서 이주 노동자가 동사했던 비닐하우스 근처를 탐조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구의 난개발로 야생동물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만나고 동

시에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들이 어떤 폭력성과 이어져 있는지를 함께 고민했어요. 그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특정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바로 동물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같은 존재로서 같은 걸 느끼면서 함께하고 싶은 거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동물권으로 인권 운동과 환경 운동이 연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진아: 은영 님의 말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어갑니다. 미담도 공동체적 운동을 통해서 다른 담론과도 연대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보자, 그런 고민을 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 와닿는 답변들도 많았고요. 활동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동물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은영 : 진짜 감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엄청 좋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겠고요. 어떤 구체적인 이상향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말도 안 되는 폭력성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못하겠으니까, 이걸 외면하고 살지는 못하겠으니까 행동하는 거니까요. 동물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함께 상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을지, 인간과 동물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지금 우리 동물과 최악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인간만큼 나쁜 동물이 없고요. 이렇게 못된 가해자가 아니라 훨씬 더 대등할 수 있고,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말이죠. 다른 동물들이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물이란 만날 일도 없어야 하는데 만나고 있는 동물들도 있으니까, 만나지 않고서도 지구환경에서 존재로서 연대할 수 있는 수많은 관계를 상상합니다.

기현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 질문을 원해요. 사회가 더 많이 질문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회에서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

고 3월 초에 방해 시위 재판이 열려요. 직접행동에 대해서 좀 더 즐겁게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지가 올라가면,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만난 미담과 디엑스이 은영 활동가

줌(Zoom)으로 은영 님을 만나고 나서, 꺼진 태블릿 창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분명 인터넷 연결은 끊겼지만, 어딘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결망 안에 수많은 동물이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의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져서 외면받는다. 인간과 동물을 분리하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하며 서로의 연결고리를 점점 찾기 힘들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결을 찾아내고 동물권을 확장해나가는 시도를 하는 은영 활동가. 그와 이야기 하면서 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서로를 보살피면서 존재하는 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짚어 볼 수 있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서 함께 앞을 상상하고 싶다. 미담에서 지금보다 더 불편한 문제와 이야기들을 일상으로 끄집어내서 행동하고 싶다. 하루빨리 '우리는 동물'이라는 자각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본다.

마무리 담화

2020년 활동을 마치며 나눈 이야기

기현 : 우리가 한 해 동안 미담에서 주로 글로 비거니즘을 배워 왔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동으로 경험하고 부딪혀보는 것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책을 열 권 읽는 것보다 비질을 한 번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활자를 통해서만 사회를 바라본다면 자신을 기존의 언어에 가두는 것 같아요. 또, 직접 보지 않는다면 사회나 제도가 만들어온 용어에 의해서만 내 생각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제가 아는 세상을 넓혀 주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무언가 더 깊은 감정과 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진아 :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사회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더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정말 바뀌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는 수동적



으로 살아가는 법만 배워왔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많이 억압받아왔다고 생각해요.

기현 : 그래서 저는 하자작업장학교의 율 님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멋졌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제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율 님도 그렇고, 미담을 통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사회를 바라보는 노력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소리 :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도

해요. 은영님도 그런 말을 해주셨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행동하게 되셨다고요.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아갈 시대와 상황이니만큼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낄 것 같아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것 자체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기사를 봤어요¹. 사실 저희는 기후위기를 이상기후 정도로 만성적 문제처럼 여기는데, 청소년은 기후위기 자체를 코로나 19와 연관 지어 사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활동가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서로가 연결된다는 것

진아 : 저는 사실 일상에서 완전한 비건을 실천하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올해 비거니즘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연결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육식 중심의 식생활에 길들여져 살아오면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했는데, 미담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생명을 봤고,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알아가면서, 저는 그동안 피해왔던 존재들과 관계를 맺었고, 더 이상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던 때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기현 : 비거니즘 운동이 다른 운동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회 운동들과의 연결 지점을 계속해서 찾아 보면 공론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요. 비거니즘을 지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점차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권력구조를 마주하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1 기사 원문은 최우리, “코로나시대, 기후위기 체감” 청소년이 성인의 2배”, 한겨레. <2021.01.05.>

권력구조에 대응하는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과의 연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에 “동물의 몸이 오늘날 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몸과 마음이 억압당하는 방식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33쪽). 만약 동물을 둘러싼 억압과 장애를 둘러싼 억압이 서로 얽혀 있다면, 해방의 길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떠올랐어요. 은영 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동물권을 알고 난 이후로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결국 같은 구조로, 권력에 의해 착취되고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어요. 결국에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이고, 서로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손잡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리 : 제가 상상하는 연결도 기현 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비슷하다고 느껴요. 방금 말씀하신 책에 나왔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동물실험의 혜택을 입은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들이 자신들 대신에 동물들을 희생하지 말라고 투쟁을 해요. 장애해방을 외치면서 그 자리에 똑같이 동물들을 남겨놓지 않도록, 동물실험에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연결을 응원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 운동의 한계와 대안

조아 : 처음에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공장식 축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동물복지’라는 것도 동물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잘 키워 잡아먹는 거잖아요. “동물해방의 차원에서 동물복지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겠구나”를 깨달았죠. DxE 은영 활동가님의 인터뷰에서 동물복지가 등장하며 오히려 고기 소비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동물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비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소리 : 한편으로 동물복지를 이야기하는 관점은 '내가 먹는 것은 더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닭알을 살 때 껍이 더러우면 좀처럼 사지 않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동물복지라는 것이 내가 먹을 것이니까 깨끗한 식당을 가고 싶듯이, 깔끔하게 관리된 동물을 먹고 싶다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은 건강하지 않고, 비위생적이니까 먹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사고하게 되거나 내 몸에 좋지 않으니 동물복지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든지요.

진아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 운동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비건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중에 채식 소비를 늘려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자는 목소리도 크게 두드러지잖아요. 그런데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탈육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물복지가 '좋은, 안전한, 깨끗한' 먹거리를 소비할 권리로 포장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비자 정체성으로만 채식을 주장하게 되면 동물은 언제나 상품화되지 않을까요?

조아 : 공감해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운동 그 이상의 가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매 운동과 같은 소비자 운동이 갖는 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탈육식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또한 소비자의 요구로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현상을, 대안적인 삶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탈육식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아 : 분명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계 지점도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 정체성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채식

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판단해서 기업이 채식 상품을 많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동물 착취를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동물 착취는 이전과 같이 기업 일선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채식 상품이 많아졌으니 채식 상품을 먹으면서 동물 착취의 현상을 가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이네요.

조아 :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생활협동조합이 동물을 착취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 공간이 될 수 있겠어요. 이번에 한살림에서 물품을 개발하시는 실무자 인터뷰를 보면서 상품성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살림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방향에 맞는 물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거든요.

진아 : 맞아요. 그런데 생협에서도 이런 물품의 개발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소비자 정체성은 그 반대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하는 노동자요. 한살림에서는 소비자 조합원 외에도 실무자와 생산자라는 정체성도 존재해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동물 착취를 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은 모두의 노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 측면에서만 요구하는 것을 넘어 조직에서 문화적으로 '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구나'라는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리 : 그러면서도 '이 물품들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채식이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비건을 지향하려고 노력하지만 가

격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홍은전 작가가 “누군가는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저항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고, 더 다양한 실천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에서 말했던 것이 생각났고요². 그런 측면에서 채식이 선택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서 모두에게 건강할 권리,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권리와 연결된다고 하는 지현영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인상 깊게 남아요.

비거니즘이 확산되려면?

진아 :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비거니즘 지향을 단순히 소비운동, 채식 운동으로만 바라봐서는 한계가 많다고 느꼈어요. 공장식 축산을 토대로 육식 중심의 식문화를 만들어 오면서 쌓인 사회적 구조, 그 안에서 형성된 인간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이 고려되고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쌓아 올린 축산업의 구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탈육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의 영역을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거니즘을 주장하면, “지금 축산업을 하는 노동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다른 일을 하라고 국가가 강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의 사회는 그대로 두고, 축산업 폐지를 주장하면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탈육식 사회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의 성향과 선택에 따른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실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대중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수나우라테일러. 2020.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 봄. p.12

조아 : 맞아요. 비거니즘은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돌아가게 놔두어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여요. 비거니즘은 많은 생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의 상황을 바꿔 나가려면 규칙을 재정립하고 이 규칙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문제를 의제화시켜서 정치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고 이해하는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접하고 논의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보는 경험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시민이 함께 모여 만드는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소리 : 하자작업장학교 담임이신 찬스 님의 고민도 기억에 남아요. 채식하는 사람들은 유별나다는 인식이라든지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인식이라든지, 사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원하고, 그런 의지를 함께 갖고 있는데 서로의 정보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낙후시키는 방법으로 논의가 계속된다면 운동의 확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현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물권을 이야기할 때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몰라?’라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분위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잘 모른다고 생각할 경우에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운동에서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회 구조인데, 개인을 비난하게 되면 그런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담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고민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잘 모르지만, '같이 알아볼까?' 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뷰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재미있게 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어떤 사회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제도적으로 정교하고 멋있게 정치권에 제안해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일상에서 축제처럼 즐거운 분위기로 논의가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조아 : 공감해요. 서로를 낙후시키는 방식으로는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공론장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충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다른 의견에 대해 '비난' 혹은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안을 상상하는 공간에서 연결되기

소리 : 모임에 참석해서 사회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래서 우린 뭘 할 수 있지?'라고 물으면서 자꾸 기존 사회의 틀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제도 개선처럼 지금의 구조와 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임시방편으로 대안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구조에서 우리는 과연 대안을 상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구조 밖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대안 공간의 영향력이 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구조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안 공간으로부터 배우면서, 변화하고 대안 공간의 면면들을 닮아가는 거죠. 기성의 조직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도록 대안의 영향력이 커지면 좋겠어요.

진아 :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대안을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안적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리 님 말씀처럼 기성의 조직에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의 공간이 조직 안에 생기면 변화를 만들어갈 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 개개인의 청년들이 기록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상상하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매번 짜인 구조 안에서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짜인 구조 안에서만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상상력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던 욕구도 다 사라지잖아요.(웃음)

소리 : 맞아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공론장에는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고, 그런 점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최근의 공론장은 무언가 이미 형식이나 내용상으로 짜여져 있는 포럼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해당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펼치고 싶고 펼쳐야 하는 사람은 당장의 생계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논의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아 : 저는 미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실현하는 또 다른 대안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실험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느끼는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이론도 만나게 되죠. 나의 고민이 활동이 되고 공부가 되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리고 더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담이 어떻게 모임을 운영할지, 포럼을 운영할지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다 정하고 있다는 점도 대안 공간이 되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내어 원고를 쓰면 원고료를 지급한다, 발제를 하면 발제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미담을 통해 실험한 공론장을 또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만들어간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공론장이 생길 것 같아요.

한살림이 채식과 만나면

이은화(한살림 실무자)

작성자 : 진아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가치로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 운동은 비건 운동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한살림에는 비건 지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채식 물품이 있다. 처음 비건 지향을 도전할 당시 한살림 채식 물품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다는 인상을 받았다. '비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품들이 동물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살림의 생명살림의 가치가 그런 물품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물품은 바로 '채식 김치'였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가 비건이라니. 한살림에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채식 김치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살림의 이은화 실무자를 만나 보았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은화 실무자님

한살림 채식 김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채식 김치는 강원도 홍천지역 생산자분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한살림 배추와 채소를 공급받아서 가공생산지인 피내뜰영농조합식품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물품입니다. 기존 김치에 젓갈을 빼고 비건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어요. 양념의 부담감을 줄이고 깔끔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물품이기도 합니다.

채식 김치 개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한살림에서 공급되는 반찬 품목 중에 현미쌀 가스, 현미쌀 너비아니 등 비건 4종 세트가 있어요. 사실 이 물품들의 수요는 일평균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50개 이하로 나가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물품일 수 있죠. 하지만 한살림에는 환경에 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

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시장에서의 수요층면이 아니라 운동적인 방향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물품 중에서 수요층이 두텁고, 한국인에게 제일 많이 이용되는 반찬을 고민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 한살림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반찬이 두부와 김치, 조미김이었는데요. 두부와 김은 자체적으로 비건식품이라 선택에 제한이 없어서 모든 조합원이 두루 이용할 수 있었는데, 김치는 젓갈이 포함되어 있어 채식주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채식 김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치 중에서도 배추김치와 무썬박지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제철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연간 공급이 이루어지는 배추와 무를 먼저 했어요. 저장도 길고 수확도 봄, 가을로 나눠서 하고 그래서 상시 공급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두 물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채식 김치를 개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식품이다보니까 영양학적인 측면과(에서) 유통과정에서의 보존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해요. 그런데 김치는 발효 식품이고, 발효에 중요한 요소가 젓갈인데요. 이 젓갈을 빼고 공급되었을 때 김치의 품위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주변 동료들의 자문과 채식 김치에 대한 외부 연구 사례들을 종합해서 현지와의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쳐 해결했어요. 유통기한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량도 발효와 숙성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kg로 줄여서 공급했어요.

이외에도 당시에 한살림의 채식 물품 개발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실무단계 검토에서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우려도 컸어요. 물품의 개발은 조합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액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걱정과 달리 채식 김치 출시 이후 온라인 채식 카페와 SNS에 한살림 채식 김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고마움을 표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건이나 채식 운동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요. 그 전부터 환경 NGO 쪽에서 일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일해온 터전에서는 모두 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바른 먹거리를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의식적으로 항상 공부하고 변화를 지향하면서 비록 당장 내가 실천하지 않더라도,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내 역할,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을 개발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물품을 처음에 만들게 되었을 때는 많이도 만들고 싶고, 없는 것들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급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차츰 적응을 하고 한살림 내부 동향을 분석해보니, 한살림 물품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포장지와 물품의 맛을 내는 양념에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원칙들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귀 기울이다 보면 채식인들과 환경에 의식이 있는 소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물품도 만들게 되죠. 다양하고 가치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물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가 채식 김치를 개발하실 때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채식김치가 출시되고 고맙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후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았던 물품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한살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실무자로서 함께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에서 채식 물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물품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담은 매개라고 생각해요. 물품을 통해서 제철 농산물, 원물 그대로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감사함을 가지고 최소한의 재료로 정성과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해요. 채식 물품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식을 하는 활동가들의 방향이나 마음을 모아 그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살림 채식 물품의 가치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살림에서 물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당장 물품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와 인식을 담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사실 한살림이 자랑은 많이 하지 않잖아요.(웃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조합원들이나 생산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졌지만 서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으면 해요. 이런 소통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연결되고, 연결된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와 맞는 물품들로 표현되면서 점차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채식 수요층이 아직까지 굉장히 적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다가도 나중에는 채식이라고 하면 재료가 한정적이다 보니 대중적인 입맛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정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세세하게 채식의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채식 물품의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채식 김치처럼 많이 이용하는 물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널리 확장해 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건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생태계 교란 등 우리의 삶은 자연과 분리되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요. 일을 떠나서, 나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행위마다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건 운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환경과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들이 모이면 조금 더 나아진 자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채식 김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꾸준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살림에서 물품을 개발하는 일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일이라는 점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담아 내기 위해 시장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살림을 ‘운동’으로 만드는 힘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요구가 한살림운동과 만난다면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존 사회에 의문을 던지고, 주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한살림운동과 함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뷰를 듣고, 미담에서 하고 싶은 말!

소리, 조합원 1년차

비건을 지향하게 되면서 한살림 물품들을 자주 구매하게 된 케이스!
채식김치는 원룸에 살아서 김장을 하기도 애매하고, 젓갈 때문에 시장에서 김치를 사먹기도 어려운 1인 가구 비건 지향인에게 참 감사한 상품이에요!
조합원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장을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물품을 출시해나간다는 점이 와닿았어요. 실제로 매장에 가면 팩을 수거하고 공병을 재활용하기도 하는 등 생활에 가까운 개선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채식물품을 구입하려고 조합원이 되었지만, 생산자와 가깝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하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애용해보겠습니다!

+ 소리's pick : 쫄득한 현미쌀주물럭, 달달구리로는 찹쌀모나카를 추천해요!

조아, 조합원 2년차

다양한 채식상품 출시를 위해 열심히 고민하며 조합원과 소통을 해나가는 한살림 실무자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비거니즘 운동은 한살림 운동의 지향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고민을 통해, 더욱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조아's pick : 채식카레를 추천해요!

마음을 담은 건강한 빵, 니니네 베이커리

작은니니, 큰니니(니니네 베이커리)

작성자 : 기현

동네에 비건 빵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경의선 숲길에 있는 작지만 포근한 ‘니니네’ 비건 베이커리는 비건 빵이 건강하면서도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산책하다 들리는 사람들, 동네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오간다. 매일매일 다른 조합의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좋아하는 빵이 나오면 미리 예약하고 다음날 찾아갈 수도 있다. 2020년 3월에 열어 이제 1년 차라 아직 서툰 것이 많아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도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받아 주셨다. 재료 선정부터 유통까지 정성스러운 마음과 손길을 담은 니니네 자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치 : 신수동 85-13 1층 (경의선숲길 옆)

운영시간 : 12:00~20:00(일 19:00) / 온라인마켓 : 매주 일요일 밤 9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영업일 : 일월화수(목금토 휴무)

인스타그램 계정 : @nnynnyne (메뉴 라인업, 영업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버터, 계란, 우유, 정제설탕을 포함한 동물성 재료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니니네 베이커리’는 작은니니, 큰니니 두 자매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큰니니가 만들고, 작은니니가 매장 운영을 돕는다.

‘니니네 베이커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큰니니: 이름은 저와 동생의 영어 이름이 제니, 썬니여서 ‘니니네’로 붙였어요. 운영은 주로 제가 하지만 동생도 함께 준비하고 운영을 돕고 있어요.

베이커리를 여시기 전에 비건 베이킹을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이전부터 비건을 지향하셨었나요?

큰니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 생활에서 적용은 못 하고 있다가 둘이 같이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제한하며 식생활을 바꾸다 보니 실천하게 되었죠. 동생이 특히 빵을 워낙 좋아해요. 살은 빼고 싶고 빵을 끊기는 어려워서 최대한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사 먹었어요. 그러다 이왕이면 직접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베이킹을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밖에서 먹는 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어렵

잖아요. 조금이라도 알고 먹거나 직접 해 먹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가게도 열게 되었네요. (웃음)

우와, 추진력이 정말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동네에 살고 계신가요?

큰니니: 지금은 멀리 살지만 원래는 마포에 살았어요. 그 전에는 옆 동네에 살았었고요. 처음부터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게 위치를 보진 않았는데 흥대나 이 근처를 찾다가 마침 여기에 자리가 생겨서 오게 되었죠.

동네 주민으로서 저에겐 정말 반갑네요.(웃음) 방문하신 분들, 혹은 지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큰니니: 손님들은 알고 오시는 분들, 모르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비건 베이커리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여기에 비건 베이커리가 있어요?”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낀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저희 가게를 통해 알게 되시거나 비건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반응이 반갑진 않았지만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빵들은 버터 맛으로 먹는데 익숙한 맛이 아닌 빵을 드실 땐 처음엔 “이게 뭐지?”하세요. 다양하게 드신 후에는 건강하고 좋은 것 같다고 하세요.

저는 브라우니를 먹었을 때 ‘이게 비건이라고?’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큰니니: 이것저것 맛본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데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빵을 많이 안 드시고 익숙한 소보로빵, 단팥빵과는 다른 식감과 맛이라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 니니네 베이커리 매장 외부 전경



▲ 니니네 베이커리 내부 모습. 빵 하나하나 소개가 적혀 있다.

처음에 준비하실 때 마음가짐은 무엇이었나요?

큰니니: 처음 마음가짐은 최대한 건강한 재료를 찾아서 건강한 빵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제 손으로 다 만들고자 해서 가능하면 들어가는 재료를 다 제 손으로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건강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지요.

직접 만드시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큰니니: 속 재료 같은 경우 시판용 앙금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서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고자 직접 손질하고 만들어요. 병아리콩 앙금은 재료를 불려서 껍질을 까고 빵은 후 체에 걸러 만들어요. 깨 기름기가 있어서 가루 낸 것은 보관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흑임자는 깨를 다 사서 직접 볶고 갈아서 쓰거든요. 손이 많이 가더라도 재료도 오래 보관하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다 만들고 있어요.

니니네의 매력 중 하나는 매일 만드시는 빵의 조합이 다르고 신메뉴도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기대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시도를 계속 하시는 힘은 무엇인가요?

큰니니: 일단 재밌어요. 저는 원래 베이킹을 전공하지 않아서 예전에는 배웠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니니네만의 메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걸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메뉴가 같아지면 저도 지루해질 것 같아서 재료도 바꿔가며 하고 있어요. 아예 제가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재료도 그 때마다 맛있는 것도 다르고 유행도 달라서 그런 변화에 맞추기도 해요.

또, 저희가 계속 고집하는 부분이 '당일 생산 당일 판매'예요. 매일매일 메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어제와 같은 메뉴의 빵이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어제 남은 빵을 또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루이틀 보관하다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보관했다가 팔면 보관

기간이 늘어나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비건빵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변질되기 쉬워서 바로 냉동하시거나 바로 드시는 것을 권장해요. 온라인 마켓도 그 날 아침에 생산해 당일에 배송해요.



▲ 니니네 시그니처 중 하나인 초코아트보드에는 신메뉴 혹은 그 날의 메뉴가 그려져 있다. 세심한 손그림은 지나가는 손님들의 눈길을 끈다.

비거니즘이 먹거리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비거니즘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선 정책적인 것, 인식 등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큰니니: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서울시에서 채식식당 지도를 만들기 위해 <채식한 끼>앱과 제휴를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럼에도 아직은 원래 채식하시거나 알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비건을 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

자체 지원 없이 개인 혹은 특정 단체들이 작게 모여서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지자체 등의 지원이 늘어난다면 페스티벌처럼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번에 채식식당 지도를 저도 봤는데 좋더라고요. 일반 베이커리에 비해 가게를 운영하실 때 ‘비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큰니니: 확실히 재료 선택의 폭이 좁아요. 외국엔 비건 식재료가 많은데 한국엔 별로 없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성분을 살펴가며 찾아야 하고 대체품도 적어요. 제가 사용하는 식재료가 떨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지 않아서 찾아서 직구가 아니라면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 대안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세요. 저희도 가게를 열기 전엔 비건 베이커리가 크기에 비해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냥 건강해서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 확실히 재료가 한정적이고 구할 수 있는 경로도 품목도 적어서 가격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많기 때문일까 했는데 식재료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은 잘 몰랐어요.

큰니니: 당근, 호박과 같은 일반 재료들은 다른 식당들과 같은데 그 외의 재료들이 구하기 어려워요. 버터 대신 들어가는 식물성 기름도 팜유를 쓸 수도 있지만, 과정부터 비건인 재료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저희를 포함한 많은 비건 베이커리들이 비건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쓰려고 해요. 그런 재료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재료보다 단가가 높죠. 초콜릿도 한국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동물성 우유가 들어가거나 좋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가서 비건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성분이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아쉬워요.

이런 점을 사람들이 더 안다면 나를 위해 건강한 것을 사는 마음으로 기꺼

이 구매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큰니니: 가게 인원도 늘려서 규모를 키우고, 신메뉴도 개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다 보니 메뉴 개수나 생산하는 수량도 제한이 있어요. 지금은 마감 시간이 다와가면, 못 사고 돌아가시거나 원하시는 메뉴가 다 팔리고 없기도 해서 많이 준비를 못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공간에도 변화를 주고, 클래스도 열어서 더 다양하게 운영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오셔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더 다양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메뉴 중 가장 애정이 많이 담긴 메뉴는 무엇인가요?

큰니니: 저는 ‘왕밤마들렌’이요. 시그니처 메뉴였기도 하고 왕밤마들렌이 모양이나 분위기가 포근하고 모양이 귀여워서 저희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작은니니: 저는 다 좋아해요 (웃음) 제가 신메뉴를 많이 제안해요. 계절이 바뀔 때 나오는 메뉴들도 제가 ‘요즘 이거 나오는데 이거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언니가 연구를 시작해요. 병아리콩으로 만든 이번 신메뉴 ‘흑양떡 큐브’가 가장 좋아요. 저는 본업이 있어서 언니가 작업하는 것을 항상 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큰니니: 가오픈 날이나, 정식 오픈날도 기억에 남지만 특히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크리스마스가 빵집에 있어서는 정말 큰 날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래 생각한 수량보다 많이 예약이 들어와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 왕밤마들렌



▲ 흑양떡큐브

작은니니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니니네 베이커리를 시작하시면서 식생활 전반에서의 변화도 있었나요?

작은니니: 네, 가게 열기 전부터 제가 비건 빵을 먹게 되었기 때문에 언니한테 하자고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엔 조금 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싶지만 맛이 없을 때도 있고, 비건 빵이 일반 빵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 비건 빵을 먹은 후에는 속도 편하고 어떤 것이 더 몸에 좋은지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선택지에 비건이 있을 때 이걸 선택하면 더 나은 방향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최근에도 두부면 요리를 먹기도 하고 식생활 전반에서도 비건을 지향하고 있어요. 손님분들이 '비건이냐'고 물으시는 때가 있는데 완전 비건이라고 말하진 못 하지만 지향하려고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큰니니: 저희는 찾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최대한 건강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다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니니: 아! 온라인 마켓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마켓도 그날 생산한 것을 바로 포장해 배송해요.

인터뷰를 진행한 날의 날씨처럼 니니네 베이커리는 정말 포근했다. 최대한 종이 포장을 선호하고, 용기를 가져가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빵을 구매하면 선물 받는 느낌이 든다. 포장에 붙여진 작은 스티커 하나도, 보관 방법이 적힌 종이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진다. 니니네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비거니즘을 알리는 데 거창한 마음보다도 '하나의 작은 시도에 담긴 단단하고 따뜻한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즐거운 시도들이 쌓인다면 더 멀리 퍼지고 오래 지속되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

니니네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니니네' 도장. 매장 곳곳에 담긴 니니네 자매의 시그니처는 그들의 정성과 진심을 보여준다.



▲ 니니네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니니네' 도장. 매장 곳곳에 담긴 니니네 자매의 시그니처는 그들의 정성과 진심을 보여준다.

카페에서 함께 해볼까, 비거니즘

김하원(패밀리앤프렌즈 실장)

작성자 : 소리

최근에 흔히 '채식'이 뜬다고들 말한다. 대기업에서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연예인이 동물 착취 없는 옷을 입고 방송을 출연해 이가 유행하기도 한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작고 큰 움직임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주변은 어떨까?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그 한적하고 조용한 골목길에서 비건 운동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연하게 동물을 착취하는 식생활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 동네에서 매일 갓 따끈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 SNS 이벤트를 통해서 비건을 알리는 사람, 쉬는 날에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 카페 패밀리앤프렌즈 김하원 실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위치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37

운영시간 : 월~금 9:30~21:00 토 11:00~21:00 (일 휴무)

인스타그램 : @cafe_familyandfriends



카페를 이끄시는 두 분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원 : 저희는 부부인데, 종훈 사장님이 커피를 담당하시고, 저는 주로 베이커리와 마케팅, SNS를 담당하는 실장입니다. 이전에는 호텔에 근무하다가 부부가 되고 나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어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권에 눈을 떠서, 비건 카페를 하게 되었죠. 이쪽 전공은 아닌데, 흘러 흘러 여기에 왔어요.

‘비건 카페를 만들까’하고 생각하는 것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아, 정말 만들어야겠다!”하고 행동하시게 된 건가요?

하원 : 이전에 하던 게스트하우스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든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 검색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웃음).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요.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간식, 강아지 놀이터 이런 개념으로 폭 좁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강아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확장된 거죠. ‘개... 고양이... 그러면 소... 돼지는?’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강아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동물과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도달한 게 여기예요. 결국 먹거리인 거죠. 먹으니까 고통받는 거잖아요. 먹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카페라서, 비건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쉽게 접근해보자는 생각으로요.

이어서 카페 패밀리엔프렌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원 : 패밀리엔프렌즈는 말 그대로 ‘동물은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친구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단순히 카페를 위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거니즘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친근하게 소개를 해보자 생각한 거죠. 카페는 가장 편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비건 카페 패밀리엔프렌즈가 탄생한 거죠. 확실히 주변에서는 비건 카페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비건이라는 단어조차 잘 모르기도 하죠. 청년들은 많이 아는 편이지만요. 그래서 비건 카페를 한다고 하

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혹은 “그럼 비건 카페는 어떤 점이 달라? 뭘 팔아?”하고 호기심을 갖기도 해요.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하원 : 이런 경우도 꽤 있는데, 비건 카페에 오셔서 프라푸치노처럼 동물성 성분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걸 찾곤 해요. 음료를 만드는 데 우유를 쓰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안내를 해드려요. 사람들은 아직 비건 카페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기도 하죠. 비건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들이 우유 옵션을 제공하며 비건이 아닌 메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 그렇죠. 비건 카페지만 현실적인 측면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뚜렷하고, 날카롭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 차별성이니까요.

카페 위치를 이 동네(삼선동)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하원 : 근처에 대학교가 많아요(한성대, 고대, 성신여대). 청년들이 비건의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직접 거주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픈 생각이 있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카페 위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요즘 대학교에 비건 동아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비건 토론모임 등을 유치한다든지, 함께 프로그램도 기획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가까운 미래에 지금 카페의 위층도 열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비건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할 수도 있고요.

처음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손님 수는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하원 : 코로나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좀 어려워요. 19년 11월에 카페를 열자마자 저희 생각보다 꽤 손님이 많았어요. 반신반의했거든요. ‘비건 카페로 올까? 우유가 없는데, 버터가 없는 빵인데, 정말 오실까?’ 하는 생각



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오시기도 하고,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드셔 보고 속이 편해서 오시기도 했어요. 커피의 경우는 두유나 귀리 유를 사용해도 정말 객관적으로 맛있거든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우유를 먹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비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하원 : 코로나가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예요. 다른 어려움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지만, 코로나는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는 사실 천재지변이거든요.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가 다르게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코로나가 왜 생긴 건지, 이런 전염병이 왜 인간을 위협하는지, 인간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 봉사활동 중인 김하원 실장님

소리 :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인수 공통감염병은 육식 중심적인 식생활과 떼어 수 없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비거니즘의 확산이 지금 현재 인간에게 닥친 다중 재난(기후위기,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철학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알고 싶어요.

하원 : 저희 카페를 나갈 때 보시면 문 옆에 미션이 걸려있어요. 무슨 기업도 아니고(웃음). 되게 고심하면서,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미션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째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고, 둘째로 도서, 토론, 강좌 등의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비건 문화를 대중화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물권을 위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세 가지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부터 만들어가고 해요.

무엇보다 패밀리엔프렌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진정성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없는 문제지만) 비건 베이커리나 카페를 단순히 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비건 카페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삶이에요. 동시에 삶의 지향이자 목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비건을 실천하고 있어요. 백 퍼센트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삶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면서, 비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해보라고 얘기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비건 카페가 더욱 보편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하원 : 첫째로는 분위기가 필요하죠. 일단 비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아직도 여전히 비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안다고 해도 '유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다고 믿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동물을 먹거리로 봐왔어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야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비건 카페를 운영하고픈 이도 많아지고, 다시 이용하는 선순환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유난 떠는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라고만 취급되지 않아야 해요. 이미 비건이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옵션인 나라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캠페인을 이따금 진행하시잖아요.

하원 : 아 재밌었나요! 뭐가 재밌었어요?

비건을 입는 방법을 제안하는 캠페인(이하 '비건을 입다')인데요. 특히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이 진지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이어서,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감동했어요! 하트를 누르고 떠나는 게 아니라 멈춰서 고민하고, 장문의 댓글을 달고, 서로 나누고요. 어떻게 '비건을 입다'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원 : 주기적으로는 아니예요(웃음). 다만 캠페인을 하나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비건에 관련된 걸 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으려고 항상 고민해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무거운 걸 피하니깐요. 가볍고 무거움의 그 중간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만요.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게 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게 말씀하신 '비건을 입다'예요.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난 겨울에는 "비건을 입다/비건패션"을 했고, 이번 봄에는 "비건을 바르다/비건뷰티"를 기획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비건을 먹다/비건푸드"로 진행할 예정이고, 가을은 "비건을 살다/비건라이프"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서도 또 행복해하실까? 동물권을 지향하면서 말이죠.



카페에서 패딩을 준다고? 신기하고 놀랐어요.

하원 : ‘비건을 입다’를 진행한 이유는 그래야 ‘아무도 해치지 않은 패딩’을 입어 볼 테니까요. 무엇보다 비건을 체험하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자면, ‘비건을 입다’에 당첨된 손님이 패딩을 받는 대신 그 돈을 동물을 후원하는 데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보람 있었죠.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카페 매출의 일부를 후원하신다면서요.

하원 : 저희가 비건 카페인데 ‘동물을 사랑한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동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비건 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수익의 10%를 무조건 후원해요. 동물단체가 되었던, 동물 구조가 되었던, 개인 봉



사자가 되었건, 동물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에코백이랑 스티커 같은 패프 굿즈를 마련해놓았는데, 이걸 수익 전액을 후원하고 있어요. ‘이 카페는 동물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미담과 함께 고민을 키워나가는 분들에게 한 마디해주세요!

하원 : 제가 막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동물이 고통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동물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입고, 이용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 번 짚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의 결과를,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모든 존재는, 어떻게 생겼건 똑같이 귀한 거라는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인터뷰 소감

패밀리엔프렌즈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마음을 두드리는 대목들이 많았다. 그중에는 매끄럽게 담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위 지면에서 실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예전에는 아예 동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동물은 제 인생에서 아주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었어요. 내가 잘나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예뻐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성공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가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말한 것들이 너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심지어 동물을 이용해서 털을 만든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되는지 알게 되고요.”라고 말하던 하원 님의 또렷한 목소리와 비거니즘을 대중화하기 위해 점차 확장해나가고 싶다는 반짝 거리는 꿈... 미숙한 인터뷰에 답답함을 느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그곳’에 가보는 건 어떨까?

건강과 복을 부르는 빵집, 우!부래도

김성림 대표, 우찬 셰프(우부래도)

작성자 : 조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우부래도(OOH! 富來道)’는 비건 베이커리이다. 평소에도 종종 방문했던 동네 가게이지만, 비건을 지향하게 되면서 더욱 애정하는 단골 가게가 되었다. 이곳 우부래도는 방부제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재료를 엄선하여 오직 식물성 재료만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동네 주민, 비건/비건지향인,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우부래도를 운영하는 부부 김성림 대표와 우찬 셰프 두 분을 만나 건강과 맛 모두를 담은 정성 가득한 빵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 상도로37길 3

운영시간 : 화~일 10:30 - 21:00 (월 휴무)

인스타그램 계정 : @ooh_breado



▲ 왼쪽 김성림 대표, 오른쪽 우찬 셰프

우부래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부래도는 우유나 버터, 달걀 등 동물성 식품과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고 질 좋은 국내산 식자재만을 이용하여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는 비건 베이커리입니다.

비건 베이커리 ‘우부래도’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찬 : 제가 채식주의로 살면서 먹을거리가 너무 없다고 느껴져서, 먹을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부터였어요. 10년 전쯤부터 비건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쪽 일을 시작한 것은 6~7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17년도에 비건 베이커리 ‘우부래도’를 망원동에서 오픈하게 되었고, 19년에 상도동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작년 11월에는 2층에 채식 식당도 함께 오픈했습니다.

비건 베이커리에 이어서 채식식당 ‘터바채’를 오픈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우찬 : 저희도 채식 식당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빵을 사러 오신 손님들께서 근처에 식사할 곳이 없는지 여쭙는 분도 계시고, 빵 말고도 식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터바채는 비건 한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셰프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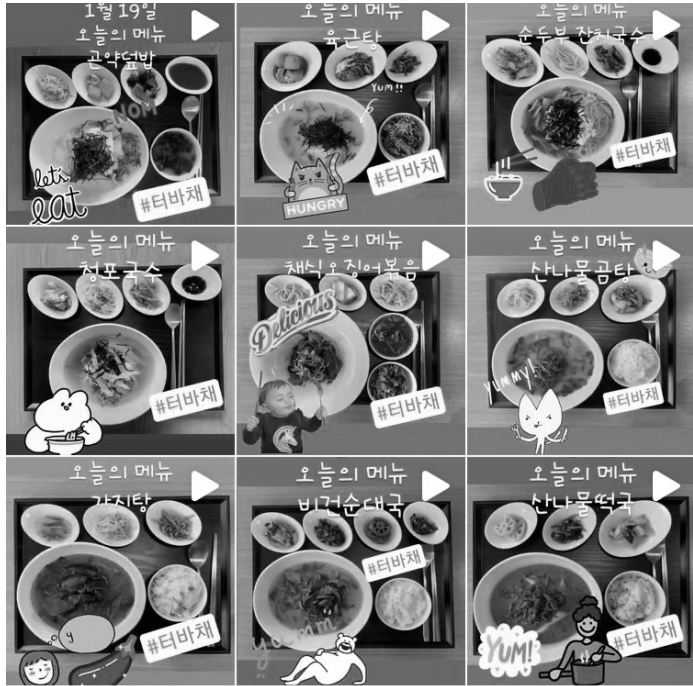
조아 : 저는 우부래도 윗층에 채식 식당을 오픈하신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던 동네주민 1인이었는데요, 터바채에서는 다른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건강하고 독특한 채식 메뉴를 즐길 수 있어서 자주 방문했습니다. 셰프님께서 엄선하신 좋은 재료들로 직접 소스도 개발하신다고 들어서인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우찬 셰프님께서 채식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우찬 : 98년도에 친한 친구의 권유로 채식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친구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채식과 명상을 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추천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채식을 시작했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23년 동안 채식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조아 : 두 분의 연애 시절에 채식을 하는 우찬 셰프님을 만나면서 성림 대표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성림 :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죠(웃음). 같이 가서 밥을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저도 원래 육식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긴 했었지만 지금의 남편이 같이 채식하자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 티바채 요리 사진

우찬 : 근데 제가 채식을 강요한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웃음). 제 아이들에게도 채식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아빠(제)가 채식하는 건 알아요. 너희도 아빠처럼 따라 해봐 하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제가 먹을 것은 성분표랑 다 찾아봐요. 과자도 아빠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일일이 알아봐주곤 해요.

조아 : 서로를 존중하고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웃음).

성림 :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타인의 강요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불러일으켜요. 저희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주려고 합니다.



▲ 우부래도 가게 전경

‘우!부래도’ 가게 이름이 독특하면서 멋진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찬 : 우부래도라는 이름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은 이름이에요. ‘브레드’를 ‘부래도’로 한자를 가지고 차음을 해봤어요. 건강과 복이 오는 길이라는 의미의 부래도(富來道)와 우(OOH)!라는 감탄사를 합쳐서 우부래도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우’씨이기도 하고요.

조아 : 저는 우부래도라는 이름이 가게와 잘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우부래도의 빵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되는 느낌을 받았고 맛도 정말 좋아서 감동했거든요. 손님들에게 빵으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 정말 맞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시다.

주로 찾아오시는 손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성림 : 아무래도 완전 비건을 하시는 분들,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오고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빵을 찾아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주말에는 전주에서 찾아오신 손님도 계셨고, 오늘은 시흥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택배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도 당일 생산된 신선한 빵을 드시고 싶어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해요. 저희는 비건이라고 크게 내세우며 장사를 하지는 않아요. 동네 손님들이 그냥 유기농 좋은 재료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가게인가보다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반 정도 됩니다.

비건 베이커리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은 어땠나요?

성림 : 주변에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논비건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걱정과 우려의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맛으로 먹냐”, “고기를 먹어야 외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거 아니냐” 와 같은 편견의 시선들이 있었어요. 저희 가게가 비건 요리를 하는 곳인지 모르고 오신 손님 중에는 메뉴 이름이 불고기면 이거 고기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밀고기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고기도 아닌데 무슨 맛으로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성림 : 빵을 만들 때의 어려운 점인데, 방부제나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서 빵의 모양이나 품질이 그날 온도나 습도, 날씨에 따라서 늘 일정치가 않아요. 그리고 판매할 때의 어려운 점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분들을 상대하는 일인데요. 가끔 손님이 자신만을 위한 빵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찬 : 어느 일정 수량을 구매하셔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장사하는 모든 가게가 겪는 어려움이겠지요.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림 :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건강한 빵과 음식을 만들자!” 건강한 빵과 건강한 음식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말하고 싶어요.

우찬 : 솔직히 요리하거나 빵을 만들 때 잘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재료가 아까워서 팔까 싶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오늘 모양이 좀 못 나왔어, 이걸 오늘 팔지 말자”하고 빼버려요.

성림 : 사실 요즘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다른 가게를 보면 메뉴를 단종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피망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피망 가격은 1kg에 만원이 넘는데 빵 가격은 3500원 정도 하고, 이래서 어떡하지 엄청 고민하죠. 그렇다고 갑자기 빵 값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도 저희는 50개 팔던 것을 30개로 수량을 줄이면서 계속 빵을 만들었어요.

요즘 건강, 환경, 동물권 등의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주변에 채식이 가능한 가게를 찾으면 선택지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비건 전문 베이커리와 식당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채식인을 위한 식당이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찬 :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식당엔 웬만하면 채식 옵션이 잘 되어있는 편이에요. 한국도 채식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해외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편이죠.

성림 : 채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도 없어야 하고 채식 업종에 있는 분들은 가격을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짬뽕을 먹는데 일반 해산물이 들어간 짬뽕보다 채식 짬뽕이 더 비싸다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비채식인에

게도 채식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도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해요. 채소 손질에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요즘은 고기 가격보다 채소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우찬 : 추가적으로 채식 보편화를 위해서 채식 전문 식당이 많이 생겨나는 것보다도 일반 식당 내에서 채식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 더 쉬운 접근 방법인 것 같고, 식당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채식 메뉴가 있으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일반인도 갈 수 있고 채식인도 갈 수 있고요.

성림 :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김밥집에 가면 뭐 뭐 빼달라 하면 만드시는 분이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우찬 : 식당을 갈 때 된장찌개 같은 거 시키려면 바쁠 때는 못 가요. 바빠서 따로 만들어주진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하면 3시는 넘어서 식당에 가야 해요(웃음).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한가할 때는 만들어주세요. 사실 식당에 옵션만이라도 있으면 체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기에 훨씬 편해지는 것이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채식 옵션을 권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찬 : 사람들이 잘 따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인식의 변화가 정부에서 계속 주입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 지도하에 탑다운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발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성림 : 요즘은 채식 지향인이 많이 증가하면서 기업체에서도 채식 시장을 공략하게 되고 그래서 선택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찬 : 우리나라는 지금 채식 시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육식과 관련한 시장은 많이 포화된 상태인데 채식 시장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크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시선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수가 소수에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하다고 틀렸다고 치부하는 것이죠. 아직 한국 사회는 인식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혐오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분이 꿈꾸시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림 : 앞으로 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더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비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싶어요.

우찬 :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맛있고 건강한 빵집 그리고 식당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림 : 만약 저희가 비건 빵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크게 써붙여 놓으면 맛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가 비건 식당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동네에 맛있는 식당으로 인식되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어요.

조아의 인터뷰 소감

동네 가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가게가 판을 치는 요즘, 애정하는 동네 가게가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비건을 지향하는 나에게 특히 비건 가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아직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비건/비건지향인들이 이곳에서만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건강한 빵과 음식을 만들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두 분의 소망은 미담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었다. 비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맞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두 분을 오랫동안 응원하고 싶다.

우리의 편견에 균열을 내는 영화

<더 게임 체인저스>¹



▲ <더 게임 체인저스> 스틸컷²

조아: <더 게임 체인저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채식 식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한다. 채식을 통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들의 실제 사례는 채식만으로도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완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먹방 운동 크리에이터 ‘단지양’은 비건 식단만으로 벌크업을 했다. 아직

도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굳건한 신화를 믿고 있다면, 이 영화를 시청해보기를 추천한다.

소리: '채식하다가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힘이 없지 않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의심이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했던 채식에 대한 편견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왔던 육식과 관련된 신화는 <더 게임 체인저스>를 보다 보면 무너진다. 자신의 신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강함을 단련하고자 '일부러'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 왜 진작 채식을 하지 않았는지 토로하며, 최고의 성적을 내는 비건을 가꾸듯 비건을 지향한다. 이 영화도 하나의 가설일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런 의심을 육식에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 이러한 이야기에는 하나의 가설일지도 모른다는 편견을 던져보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한편, <더 게임 체인저스>는 이미 비건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압박감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비건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비건을 지향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혹시 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하기 전에는 채식에 관한 관심과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길 꺼리거나, 얼버무리듯 웃어넘긴다거나 의견을 내세우기 머뭇거리기도 한다. 어쩌다 한 번 큰 결심을 하고 친절할 설명을 늘어놓다 보면 문득 자신이 구구절절 변명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물어봐 놓고 대답하면 그렇게 취급하는 이들도 많다!) 흥분한 투머치토커가 되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얼른 넘어갈 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건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이 유난히 어깨를 움츠리고 있을 때, 질문에 답변하기 난처할 때, "<더 게임 체인저스> 한 번 봐."하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난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1 루이 시호요스, <더 게임 체인저스(The Game Changers)>, 2018.

2 출처: 더 게임 체인저스 공식 홈페이지 (<https://gamechangersmovie.com/>)

먹거리 팀 고민의 시작이 된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¹



▲ <잡식가족의 딜레마> 스틸컷 네이버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 스틸컷²

기현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우리가 ‘고기’로 식탁 위에서만 볼 수 있는 돼지의 ‘진짜’ 모습을 만나러 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진짜 자연에서 돼지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자연농가에서 자라는 돼지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1 황윤, <잡식가족의 딜레마>, 2014.

2 네이버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 스틸컷

영화는 계속 각자의 안에 있는 딜레마를 꺼내게 만든다. ‘자연스러운 삶’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소비와 ‘고기’가 된 존재들의 관계는 당연한가?

2015년에 개봉했지만 영화에 나오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기후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더 심각해졌다. 기후위기는 깊숙하게 우리의 삶을 건드린다. 바이러스가 일상이 된 지금,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인 돼지의 관계를 세계 안에서 다시 되돌아볼 때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감독의 책 <사랑할까, 먹을까>에서 읽어볼 수 있다.

진아 : 미담 먹거리 팀에서 육식 중심의 식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주제를 잡은 것은 <잡식가족의 딜레마> 덕분이었다.

사실 먹거리 팀 멤버 중에 이 주제를 다루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나왔다. 엄청난 육식주의자였고, 육식 산업이 유지되는데 큰 공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나에게 돼지의 삶을 보여주는 이 영화를 보는 것은 최근의 인생 중 가장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미담 멤버들 덕분에 이 영화를 용기 내서 보게 되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감독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너 한것 불편해 봐!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늘 식탁 위의 고기로만 바라보던 어떤 존재들이 웃고, 어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 내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나는 그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다. 여전히 완전한 비건을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또 다른 존재와 나를 연결해주었고, 나는 그들의 삶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티몽: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라는 대전제를 두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서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웠다. 미담 덕분에 막연하게 고민으로만 머물렀던 생각을 다듬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워크샵이 기억에 남는다.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제비를 받았다. 비전문가인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같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노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힘이 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소리: 워크숍 이후로 2주 비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미담에 합류하게 되었다. 비건을 지향하게 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거의 비건 지향을 하자마자!) 미담을 만났다.)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할 게 많겠다는 크고

작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런 시기에 나의 식습관을 알아가며, 나부터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챌린지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같이'함으로써 얻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낀다. 챌린지 기간 동안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감각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코로나19로 혼자 밥먹을 시간이 잦았던 2020년! 분명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챌린지 덕분에 '함께' 먹는다는 생각을 종종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미담으로 활동하면서 재밌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의 삶을, 비건 지향을 지속하고 싶어졌다.

일개미: 세대 교체 중인 노동 의제에 대한 아쉬움으로 '노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지만, 내 역량의 한계로 인해 욕심만큼 글이 써지지 않아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어 속이 시원하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제점만 열거해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담지 못해 아쉽기도 하다. 앞으로 채워가고 싶다.

기현 : 2020년 미담에서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관계'와 '연결감'이었다.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중심에 두고 먹거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식생활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과의 관계가 엮여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 '먹는다는 것'은 그 연결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또,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며 희망을 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과 생활에서의 관계 뿐만 아니라 미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서로를 존재 그 자체로 보고, 학력이나 커리어가 아닌 관심사 하나로 묶인 관계는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앞으로도 내가 경험한 관계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조아: 미담에서의 활동은 내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확인하게 해주는 경험이었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면서 채식에 지향하게 되었고, 비거니즘이라는 삶의 철학을 만나게되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가장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전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찾아온 변화를 맞이하는 일은 두려움을 수반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기에 더욱 가치있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변화의 과정을 응원하며 지지해주고, 늘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고마운 공동체 미담이 곁에 있어 삶을 더욱 애정할 수 있었다. 부족함을 좋은 배움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미담 멤버들에게, 그리고 많은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미담과 함께 만들어갈 활동도, 내게 찾아올 새로운 변화도 모두 기다려진다.

진아: 미담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발견하고 느낀 사회 문제를 토대로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고민을 확장하는 공간이라 여쭙면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의를 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려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회의 어법에 균열을 내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1년이였다. 앞으로 지금의 고민을 어떻게 실천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를 위한 담론,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미담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함께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우리 함께 해요!”

연락처

전화 02-6931-3608(모심과살림연구소)
이메일 connect.midam@gmail.com
인스타그램 @connect_midam

함께한 사람들

기현/ 소리/ 일개미/ 조아/ 진아/ 티몽

디자인

우솔
@sona_m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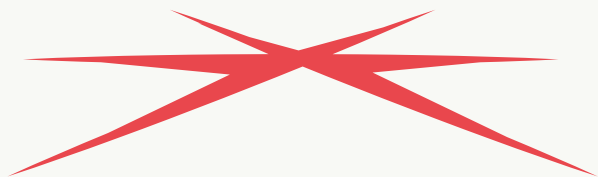
발행일

2021. 03. 31.

ISBN

979-11-952059-3-6

비매품입니다.



미담

ISBN 979-11-952059-3-6



9 791195 205936